朝鮮日報
五日夕刊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新綠의 錦繡江山

牧丹峰 淸流壁 綾羅島와 牛月島 乙密臺 浮碧樓 永明寺와 練光亭 長城一面 溶溶한 大同江水 大野東頭 點點한 靑平列州의 山岳이 山河와 樓臺가 映帶聯絡하야 新綠이 쏘더지는듯한 萬樹繁華의 錦繡江山 멀:멀:는 四千年 넷 都邑의 感慨만흔 追憶을 날으키는 西朝鮮文化의 一大中心地인 平壤城! 朝鮮을 말하는 無心한 外人 오히려 이 平壤城의 今昔을 指摘하거든 鄕土를 愛慕하는 朝鮮의 士女 어찌 일즉이 平壤城 西京의 今昔을 니즐수 잇스랴? 萬樹新綠에 쌔혀잇는 넷 녀름의 平壤城은 滿朝鮮靑春男女의 胸中 形言치 못할 憧憬의 情熱을 자어내는 바이잇다

×

이제 滿都의 人心을 集中하는 焦點이 잇는 京城의 女子庭球大會가 끗난뒤를 이어 關西體育會의 主催로서 第一回 全朝鮮女子庭球大會를 平壤에 開催한다 하니 이 季節에 適合한 一快舉이다 吾人은 全朝鮮 好球의 靑年男女 온갓 世間의 苦惱과 煩惱를 잠간 行雲流水에 부치어 버리고 가거라 이 追憶이 기픈 錦繡江山으로! 거긔에는 形言치 못할 幾多의 情趣를 날으키는 바 잇다

割肉充腸의 政治

다리를 깍거 주린 배를 채우면 배는 부를는지 모르나 畢竟은 그 毁傷된 支體를 救할 수 업고 全生命의 죽어넘어짐을 보고 말 것이다 殘虐한 無謀일 것이다 이제 朝鮮의 政治는 곳 이러한 政治이다 割肉充腸의 政治이다

×

饑鬼巷의 執行員! 饑餓로 因하야 納稅하지 못한 者에게 殘忍暴虐한 强制執行을 斷行한 迎日郡當局! 그러나 吾人은 특히 迎日郡當局만을 彈論코저 하지 안는다 全朝鮮 到處 모다 이러한 政治로서 支配되는다

×

彼等 爲政者 稅金徵收의 宗旨 何를 强調하야 國家行政의 大 치 못할 것을 歸說할 것이다 吾人은 이제 彼等의 暴民을 痛罵코저 아니 한다 但 彼等이 自家의 暴民不仁함을 不服 함진대 이것이 곳 逃避에 難한 現代國家의 窮極한 境地를 說明하는 아닌가? 支配者의 煩悶 特權階의 危機!

南浦穀市問題

×

十數日來 자못 世人觀聽의 焦點이 되든 鎭南浦穀物組合의 紛糾는 朝鮮人의 同盟休業으로 因하야 急轉直下 畢竟은 實質의 杜絶됨을 보앗다 官許의 市場에 對한 張遠한 評說 또는 賭博場인 取引所 및 斯種의 穀物 그로 因하야 朝鮮人經濟의 敗滅을 促成하는 事勢는 이제 다시 提論코저 아니 한다 그러나 赤裸裸한 民族的 對立의 抗爭으로 結局 最後의 破裂을 본 이 鎭南浦穀物組合의 紛糾는 現下 鮮日兩民族의 對立한 關係를 表白하여 남음이 잇도다

罷業人員十萬
四日外지의 總數
工務局一萬人을 筆頭로

(上海四日發) 四日外지에 罷業한 中國人은 工務局 土木課의 一萬人을 筆頭로 外國銀行, 英字新聞, 煙草會社, 鷄卵會社, 石鹼會社 等의 二萬五千人 其他를 分하야 十萬人에 達한다더라

盟罷는 益益擴大
緩和는 表面的 뿐

(上海四日發) 三日부터 上海市中은 商業取引 等이 杜絶 中인바 電話은 通하고 軍事는 中國人을 태우지 아니하고 運轉하야 表面은 平穩한듯하야 衝突은 絶치 아니하나 罷業은 益益擴大하야 『푸룬』의 英米煙草에스타 及 『마제스테크레푸』는 帝國『호텔』의 使用人도 罷業하얏더라

工部局巡査도 罷業
水道, 電氣, 瓦斯는 無事

(上海四日發) 工部局中國人巡査는 四日夜 十一時의 勤務交代時間에 交代하는 者 업이 오 其他는 全部 罷業하야 一人도 來치 아니하고 上海人의 生命이라 할 만한 水道, 電氣, 瓦斯 等은 何等 罷業의 破綻이 업시 無事하다더라

『호텔보이』에도 罷業勸告

(上海四日發) 罷業團은 外人이 使用하는 『보이』 等에게도 罷業을 하도록 勸告하는 中이더라

英租界占領後乃已
表面緩和는 樂觀不許

(上海四日發) 學生團의 一代表인 某氏는 四日 記者訪問에 對하야 四日의 情勢가 表面緩和하여짐을 스로보고 樂觀하는 것은 誤見이라 學生團의 徹底的으로 行動할 約束이오 英租界를 占領치 아니하고는 말지 아니할 決心이라 云云

經濟絶交
武昌學生團主唱

(漢口三日發) 武昌의 各學校 學生은 上海學生을 應援하기 爲하야 外人과의 經濟斷絶을 主唱하고 三日부터 全部 休校하엿다더라

日華紡織襲擊

(上海四日發) 四日午後五時頃에 浦口日華紡織에 一暴動團이 襲來하엿스나 日本人 從業員이 殺到하야 目的을 達치 못하고 負傷者 五名을 出하고 아러낫다더라

伊兵出動命令

(羅馬三日發) 中國의 消息에 依하면 伊太利政府는 派大한 興味

『쏠셰비키』에 屈服되엿다 본다더라

外國銀行團
中國紙幣不受付

(上海三日發) 三日朝로부터 中國銀行은 全部 休業하엿스며 外國銀行團은 中國銀行殘幣를 受付치 아니하기로 되고 麵麴店 職工은 四日부터 罷業한다고 稱하더라

警戒益嚴
租界境界에 鐵網

(上海四日發) 當局의 情報에 依하면 盛永祥氏가 部下의 軍隊를 上海로 急派하야 租界外에서 不良의 徒를 一掃하기로 되엿다 傳하며 騷擾者側은 市內 主要地域의 警備가 嚴重하게 되자 警備의 薄弱한 方面을 襲하야 或은 租界外로부터 租界內에 通行人 等에게 投石 又는 發砲하고 即時 逃走하는 等 漸次 巧妙한 手段을 써서 此의 檢擧는 容易치 아니함으로 當局은 昨年 江浙戰爭 當時와 如히 租界의 境界에 鐵條網을 처서 出入을 嚴重히 하기로 하엿다더라

京奉鐵道
發着警戒
共産黨潛入說로

(奉天四日發) 上海의 暴動이 奉天罷業과 何等의 關係가 有한 様으로 傳하는데 罷業中國人職工의 要求는 單純한 賃金增額뿐이나 露國共産黨이 後援이 되여 잇지는 아니한가 萬一 그러타하면 一大事라 하야 同地 日中官憲은 在住露國人의 動作에 注意하는 中인 同時에 京奉線 要衝 時마다 一層 警戒를 嚴重히 하고 哈爾賓方面에서 來奉하는 人에게는 一人式 私服刑事를 尾行식키는 中이더라

米人宣敎師도 襲擊
蘇州學生團에도 飛火

(上海四日發) 蘇州에서는 學生團이 各種運動을 이르키는 二日 米國宣敎師 『스로우푸』氏는 『라바』路 通行中 學生團에게 襲擊되야 暴行을 受하고 其他 各處에서 外人의 附屬備護를 當한 者가 多數라더라

各陸戰隊警備成立
騷擾는 益益蔓延兆候

(東京電) 上海三日發 海軍省 一報치 아니하나 共同租界北東部는 着 — 三日의 形勢는 昨日과 如히 險 — 益益騷擾되야 日人은 死者는 업는

하야 上海로 向하야 … 中이더라

學生射殺과
카氏哀悼表意

(北京四日發) 『카라한』大使는 本日 外交總長 沈瑞麟氏에게 對하야 書翰으로 上海事件에 關하야 哀悼의 意를 表하야 上海에서 中國勞働者, 學生이 射殺되엿다는 報에 接하매 哀悼痛惜을 마지 아니하노라 此慘劇에 遭한 中國民에게 對하야 深大한 同情을 表하며 余가 貴國人民은 將次 其全勝을 同分하리라 陳述하엿더라

煽動說에 辯明

(上海四日發) 露西亞領事는 文書에 依하야 工務局의 審問에 答하되 絶對로 煽動에 關係가 無하다 辯明하엿더라

續發이나 掠奪破壞의 遺憾되는 十件에 達하엿스며 此外 罷業은 電車, 電話, 瓦斯, 印刷工에 外지 波及하야 益益蔓延할 形勢이고 瓦斯는 伊國義勇隊, 水道는 米國陸戰隊, 電燈은 米, 伊陸戰隊, 北四川路警察及派出所는 日本陸戰隊로 完全히 保護하는 中이며 遣外艦隊司令官 水野少將은 軍艦安打로 三日 漢口를 發하엿더라

學生殺傷事件과
北京外交團의 態度
米國은 中國에 同情

(北京四日發) 上海學生殺傷事件의 外交部抗議에 對한 回答에 就하야 四日 外交團會議가 開催되엿는데 英國의 態度는 益益强硬하야 米國은 中國에 同情하야 若干 中國의 立場에 잇는 關係上 學生이 此에 關與하는 時는 同情치 아니치 못하며 日本은 紡績工場의 事件이 如斯히 發展된 것을 非常히 遺憾으로 思하야 學生事件에 就하야는 事件을 最少限度에 止하기로 苦心 中이더라

外交團의 反駁回答
南京路殺傷抗議에

(北京四日發) 中國外交部로부터 北京外交團에 送한 學生射殺事件에 關한 抗議에 對하야 外交團首席 伊太利公使로부터 外交總長 沈瑞麟氏에게 送한 反駁書의 大要는 左와 如하더라 上海騷擾中 犧牲者와 或은 死亡하고 或은 重傷을 負하엿슴은 誠히 遺憾에 不堪하나 余等은 警察이 武器를 使用하는 不得已에 至한 狀況을 詳細히 할 이 必要한 줄노 信한다 租界內 南北路에서 秩序를 攪亂코자 하야 純然한 排外的 『비라』를 撒布한 示威運動者의 合團의 解散을 被命하고 集會者는 逮捕되엿는데 群衆은 警官의 命에 服치 안코 더구나 警察署를 襲코자 하얏기 때문에 警官은 비로소 武器를 使用하는 不得已에 出한 것인즉 事件의 責任은 正히 租界警官에게 잇지 안코 示威運動에 잇다 中國政府는 外交代表者와 妥協의 精神으로써 此의 不幸事件을 取扱하야 速히 秩序恢復의 措置를 期케 함을 望함

責任은 租界官吏에
外交總長의 第二回抗議

(北京四日發) 四日 外交總長은 外交團首席 伊太利公使에게 對하야 左와 如한 第二回의 抗議를 하엿더라 上海事件에 關하야 本總長은 本月一日 貴公使에게 抗議를 提出하야 上海領事團에게 速히 捕縛者의 釋放及 今後 再次 如斯한 事件이 發生치 안토록 警告하엿는데 一日에 又 三人을 射殺하고 十八名을 傷케 하엿스며 또한 報告에 依하면 負傷者의 多數는 背後에 傷을 受하엿는데 一方 工部局의 警察官에게는 一人의 負傷者도 업스니 如斯한 不法行爲는 邦人으로 하야금 憤慨식혀 商工界 罷業의 不良結果를 生케 하엿스니 이가티 人道를 無視함과 如함은 租界官吏가 完全히 責任을 負할 것이다 本總長은 貴公使에게 對하야 再次 嚴重한 抗議를 提出하야 關係各國公使及 上海領事團에게 速히 如斯한 事件의 惹發을 防하도록 傳達하기를 乞함

衝突이 起치 아니하엿스나 罷業은 益益擴大한 傾向이 잇서 罷業者의 數는 十萬人에 及하는 바 其大部分은 苦力이라 하며 本日 『노-스·차이나·데일리·뉴스』紙는 『上海의 平和를 愛好하는 中國人에게』라 題한 論說을 揭하야 罷業의 一般狀態를 論한 後 이어 暴動團及 煽動者는 如何히 騷擾하더래도 早晩間 질것이 分明하다 其間의 生活은 何人이든지 不愉快할 것이나 그러타고 外國官憲及 居留人 等은 어대까지던지 暴動을 鎭壓하야 秩序를 恢復할 決心을 飜覆할 수는 업다 諸君의 平和와 幸福과 安全과는 일로 因하야 脅威를 受하나 그러나 此 威脅이 何日에 終熄할가는 諸君의 覺悟에 依할 것이라 云云

今回騷擾와
데일리紙의 論評

(上海四日發) 暴動團도 外國人에게 對하야 한갓 攻擊만 加하여도 無用의 事라 생각함에 至하엿는지 本日은 아즉부터 아즉 何處에도

張氏入京과
反奉派의 策動

(奉天四日發) 張作霖氏의 晋京後 反奉天派는 今回가 만히 奉天에 入하야 何事인지 策動코자 企圖 中이라 云謂함으로 王省長은 陳遼兵司令官과 何事인지 密議하엿다더라

北京에 非買同盟
北京總商會의 決議
四日부터 開始하얏다

(北京四日發) 北京總商會는 幹事會를 開하고 非買同盟 斷行을 討議하야 四日부터 各關係國의 雜貨를 買하면 其兌換紙幣의 使用을 拒絶하기로 決하엿더라

『歸國하야 誓死決戰』
上海事件勃發과
在東中國留學生의 蹶起

(東京電) 上海騷擾事件에 關하야 在東京中國留學生及 華僑合會員 約三百名은 既報와 如히 四日 神田基督敎靑年會館에 緊急大會를 開하고 上海事件 眞相의 原因인 日, 英兩國의 態度를 痛烈히 詰問하야 『直히 歸國하야 誓死決戰하자』는 激烈한 演說을 試하고 會場은 如沸熱狂하야 混亂에 陷하엿스나 神田警察署員의 注意에 依하야 更히 協議하고 代表者를 選出하야 外務省을 訪問하야 抗議를 提出하기로 하고 午後四時에 散會하엿스며 同日 代表 六名은 直時 外務省에 出頭하야 抗議書를 提出하고 無事 解散하엿더라

雲廣形勢乍緊張
楊, 廣東政府要求拒絶

(廣東四日發) 政府가 楊希閔에게 對하야 二十四時間內로 回答하도록 要求한 바의 一, 革命政府에 絶對服從 二, 財政機關의 返還 三, 唐繼堯討伐에 全軍을 廣西로 出動식힘이 可하다는 通牒은 即時 拒絶하기로 決하야 國民黨 對 雲南軍은 玆에 總決裂의 時期에 達하엿더라

廣東政府의 主義政策
絶對共産은 아니라고

(廣東四日發) 廣東政府는 共産主義 施行의 報道가 盛行하기 때문에 四日 長文의 宣言을 發하야 政府의 主義政策은 孫文氏의 三民主義에 依한 것으로 共産主義가 아님을 絶對로 宣明하엿더라

赤軍의 國境集中
中國에 對한 威脅的

勞農側은 海港及 尼市로부터 二個聯隊의 兵을 中東線 國境에 向하야 進하는 中이라는 情報가 잇다, 右는 全혀 이와 노푼 長官의 命令 九十四號 問題에 關하야 外交問題가 促進되얏슴으로 中國側에 對하야 威嚇的 態度에 出한 것이라 判斷되더라

對獨軍備撤廢通牒
六日午前에 公表豫定

(『쏠드』無線三日發) 聯合國大使會議의 獨逸軍備撤廢에 關한 對獨通牒은 六日午前에 公表될 터이라더라

佛國豫算
上院通過

(『쏠드』無電二日發) 佛國上院은 一九二五年度의 豫算案을 通過하얏는바 財政長官 『카이요』氏는 右討議의 際에 外國에 持行한 資本及 證券은 六個月 以內에 佛國에 還來케 되리라고 述하얏더라

미네소타州旋風

(紐育四日發) 『미네소타』洲 旋風이 起하야 即死者 五名 負傷 三十七名을 出하고 交通이 杜絶함에 至하엿는데 損害假想額은 二百五十萬弗이더라

地租移讓
實行可能立案

(東京電) 田中政友會總裁는 四日 築地의 某處에 黨出身의 政務官을 招待하야 晩餐會 兼 懇談會를 開하얏는데 席上에서 左의 意味의 說話가 잇섯더라 去一日의 幹部會에서 政友會의 年來主張인 地租移讓을 實行코자 右方針에 就하야 政務調査會는 自由의 見地에서 各般의 調査를 進하기로 되얏다 그리하야 調査決定한 結果 實行의 時期及 方法 等은 別個의 問題로 하야 取扱할 것은 勿論이나 政務調査會는 從來의 形式을 一變하야 規則的으로 實行可能한 立案을 樹立하기로 하얏슨즉 政務官諸君도 右의 趣旨를 諒解하야 一層 政務調査會와 聯絡을 保하야 黨의 根本方針과 背馳치 아니하도록 留意함을 望함

豫算編成方針
五日閣議上程

(東京電) 十五年度 豫算編成方針은 去一日 大藏省으로부터 內閣에 回附되야 聯調로 나아가 二日 閣議에 附議決定할 터이엇스나 아즉 說明關係에 整理未了한 點이 잇다 하야 政友會出身閣僚가 豫算編成方針 審議에 際하야 濱口藏相의 消極的 方針에 滿足지 아니하고 政友會 年來의 主張인 積極主義를 主張할 形勢임으로 二日 閣議에 方法에 就하야 愼重考慮中이던바 四日에 至하야 政友會의 積極方針의 主張도 意外로 弱少할 뿐 아니라 且 政友出身閣僚가 不在하다 하야 實際의 豫算은 豫算槪算 審議의 際에 論議될 것이라는 理由로 畢竟 從前例와 如한 豫算編成方針을 決定하야 各省의 豫算槪算에 着手케 할 事에 意見이 一致되야 五日 閣議에 歲出豫算이 上程되얏더라

編成方針大要

(東京電) 大正十五年度 豫算編成方針은 二日의 定例閣議에 附議決定할 터인데 其要領은 左와 如하다

一, 十五年度의 歲出豫算은 極力 經費의 節約緊縮方針으로서 編成
二, 一般經費에 關하야 되도록 節約을 加할 事
三, 繼續費 其他 旣定計劃에 屬한 費途다 하더라도 可成 此를 總止 又는 其全部 或은 一部의 繰延할 事
四, 新規要求는 此를 中止케 할 事 (小學校敎員俸給費國庫負擔 二千萬圓은 旣定方針)
五, 經費의 緊縮을 目的으로 한 人員의 經費淘汰는 此를 絶對로 하지 말 事
六, 經濟界의 現狀은 尙히 巨額의 募債를 許치 아니하는 故로 公債計劃은 될 수 잇는 데로 此를 縮少할 事
七, 各省으로부터 提出할 槪算은 七月十五日外지에 大藏省에 回附할 事
八, 各特別會計豫算에 就하야도 亦是 前記各項에 準하야 此를 調製하야 八月三十日外지 提出할 事

政本合同
當分無望
本黨氣勢稍强盛

(東京電) 地租營業稅의 委讓問題에 關聯되여 豫算編成期에는 政憲兩派의 意見의 扞格을 生하야 달하서 現內閣의 破綻에 逢着하리라는 觀測으로부터 政本合同을 實現하야 後繼內閣을 組織하리라 하야 高橋子 大木伯을 中心으로 兩派의 間을 斡旋하는 中이라 宣傳하는데 本問題에 對한 本黨側의 態度는 極히 冷靜하야 今日은 이믜 政本合同의 時機가 아니요 或히 必要하다면 안되겟다는 說이 잇게 主張됨에 至하엿다 此說에 從하면 政本合同은 尙히 時期를 失하야 今日에는 合同의 秋가 아니오 現內閣崩壞後에 政權移動 如何에 依하야 政本兩黨中에 政權을 掌握한 便側 其一에게 併合되도록 運命이 到着하엿다 한이다 合同論이 不絶함에 不拘하고 本黨側이 冷靜한 態度를 取하기 째문에 政本合同은 依然히 具體化될 理由를 缺한 것이더라

殘留派取扱案과
政憲의 意見相違

(東京電) 革新俱樂部殘留派를 與黨의 一部로 認할 與否에 就하야 政憲兩派間에 意見의 相違가 생긴 바 憲政會는 從來와 如히 此를 與黨으로 하야 行動을 共히 하자 함에 反하야 政友會는 革新俱樂部合同者의 感情을 顧하야 交涉團體의 數에 조차 維持치 못하는 少數者를 與黨의 一員으로 認함은 不可하다 主張하야 四日의 兩派幹部懇談會에서도 結局 有耶無耶에 置하야 버렷스나 一方 革新殘留派의 淸轍은 一黨主義로 現內閣에 對하야도 政策本位로 나아갈 터이며 從하야 從來와 如히 與黨三派의 一員이라 云하는 主張은 的確한 者가 업다 그런데 政憲兩派는 如何한 取扱을 할가 하는 中이나 大體의 傾向으로는 憲政會에 對하야 此에 近하라 하는 中인즉 此機微를 因한 感情은 畢竟 政憲의 離脫할 時는 露骨的 發現하게 되리라더라

樺太利權問題
民間要求認容

(東京電) 次官會議(定例)後 關係各次官은 北樺太利權問題에 關하야 協議한 結果 民間의 要求를 大槪 認定하기로 一致하엿슴으로 兩三日中에 加藤首相으로 民間側의 來邸를 求하야 正式交涉

을 식히기로 하고 正午에 散會하엿더라

兩航空隊壯擧
또長距離飛行決行

(東京電) 陸軍航空隊의 旭川訪問과 海軍航空隊의 北京訪問에 다 成功한 成績에 鑑하야 海軍航空隊는 『에프』五號機 二機로 橫須賀 舞鶴港間 往復 一千五百浬 運轉을 一週間의 豫定으로 七月에 決行코자 準備中이오 陸軍航空隊도 七月中 陸軍 九州大村間 往復 一千六百餘海里를 二日間에 決行할 터이라더라

本年度 地方廳救濟費

總督府가 旱害救濟及 授産을 爲하야 被害道에 對하야 分布한 經費는 既報와 如한 바 此에 依하야 今年 特히 此等 救濟費로 地方廳의 歲入에 計上된 것은

忠北	七、九六五
全北	一六、七一〇
全南	一〇、五〇〇
慶北	三〇、〇〇〇

이며 繼하야 今年度道地方費의 凶歉救濟費及 救恤費豫算을 보건대

	凶歉救濟	救恤
京畿	一五、一九〇	七〇〇
忠北	四、二五〇	四〇〇
忠南	四六、八九〇	一、二七二
全北	五、四六三	一、二五〇
全南	二〇、二二七	三、〇一二
慶北	五九、四九一	三、九八八
慶南	八、三一〇	二、六八〇
黃海	六、三一八	一、四一〇
平南	五、八四二	一、一五〇
平北	五、七五三	一、一八三
江原	六、〇六〇	一、二八〇
咸南	五、〇九二	八五〇
咸北	一三、八九八	五三〇
計	二〇二、六八四	二六、八〇四

으로 前年度에 比하야 大體로 經費가 增加되엿고 凶歉救濟費로서 昨年度보다 減少된 것은 僅히 忠北, 全北의 二道에 不過하다 又 救恤費는 忠北, 全北, 平南, 咸北의 五道가 減少하엿기 때문에 合計로는 結局 前年度보다 三百五十五圓의 減少를 示하엿더라

鐵華寫眞 投稿歡迎
火山國化한 中國

爲替貯金에 依한
日本에 流出總額

爲替貯金管理所의 昨年中 受拂狀況을 보건대 振替貯金은 拂込 一億九千九百二十四萬九千二百八十八圓 拂渡 一億九千九百三十五萬一千七百九十七圓인데 此를

	拂込額(圓)	拂渡額(圓)
大正十年	一四八、七四〇	一四七、三三七
同十一年	一六六、五二七	一六六、三八九
同十二年	一七六、二〇七	一七六、〇三五

에 比較하면 此의 二三年來는 殆히 二千萬圓以上의 率로써 增加하야 今年度末에는 優히 二億萬圓을 突破할 豫想한에 至하엿다 郵便爲替의 受拂에도 年年 一百萬圓乃至 三百萬圓의 增加이며 大正十年의

振出總額

은 一億百六十四萬四千七百九十五圓이던 것이 十三年에는 一億五百八十五萬一千百七十八圓으로 拂渡總額 一億百三十二萬八千九百二十四圓은 一億七百四十七萬六千百六十五圓으로 激增하야 郵便貯金도 十二年外지는 年年約 二百萬圓이 增加되엿스며 十三年에는 大暴前年額에 近한 二千百二萬九千八百四十七圓의 現在高를 示하엿고 今年에 至하야는 銀婚式紀念貯金도 新히 加하야 五月二十日 現在가 二千百八十萬九千百五十四圓 即 昨年末보다 僅히 不出二個月에 約八十萬圓의 增額을 示하엿다 從하야 利息勘定에도 大正十年에는 七十九萬四千二圓이든 것이 十三年에는 九十四萬九千四十九圓에 達하엿는대 如斯히 朝鮮爲替貯金은 制度의 普及에 隨伴하야 最近 異常히 膨脹하엿슴으로 事務와 如한 것도 現狀대로 遂行한다 하면 到底히 澁滯를 免키 不能한 狀態인 故로 旣報와 如히 多年의 懸案이던 管理支所의 設置도 漸次 具體化함에 至하엿다 그런데 以上에 依하야 爲替貯金에 依한 資金의 移入關係를 보면

(振替貯金及 郵便電信爲替(合算))

	受入額	送金額
大正十年	[illegible]	[illegible]
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이니 即 大正十年에는 二千七百六十一萬六千四百四十八圓, 十一年에는 二千四百七十二萬九千五百十一圓, 十二年에는 三千百四十五萬五千五百十六圓, 十三年에는 二千百十萬二千七百四十圓이 朝鮮으로부터의 流出額이 되는데 勿論

流出額이 되는데

勿論 流出의 거의 金額은 日本이 되는 故로 關東震災의 影響에 依한 十二年을 除하면 漸減하는 趨勢로서 大正十年에 比較하면 六百五十萬圓의 激減을 示하엿다 그런데 此의 流出漸減의 理由로 當局者는 取引의 不振에도 基因하는 바이 多할 것은 勿論이나 又 一面에는 朝鮮內 生産品 自給自足 促進의 結果라고도 思할 수 잇다고 語하더라

米價더暴騰하면
社會問題가 可慮

(大阪電) 來阪中의 岡崎農相은 語하되 過去七年間의 米價大勢를 適當하다 認하야 此를 維持할 方針이나 正米와 定期가 逆開하면 政府所有米를 拂下할 터인 바 이 以上 米價의 昂騰을 來함과 如한 事가 잇스면 社會問題를 惹起할 念慮가 잇다 云云

朝鮮史編輯會官制

(東京電) 六月二日 閣議에서 決定한 朝鮮總督府의 朝鮮史料編輯會官制는 四日 閣議에서 原案에 大修正을 加하야 通過하얏더라

總監多獅島視察
大塚內務局長도出發

大塚內務局長은 六日夜 新義州에 向하야 出張할 豫定인데 氏는 新義州에서 下岡政務總監과 合하야 例의 多獅島를 視察하고 形便에 依하야는 鴨江에 出하야 昌城外지 溯行視察하는지도 未知이라 하며 因하야 九山土木課技師는 視察을 準備키 爲하야 四日夜 多獅島로 出發하엿더라

賴母木桂吉氏
帝通社長辭任

(東京電) 賴母木桂吉氏는 遞信政務次官 就任과 同時에 帝國通信社長을 辭任하얏슴으로 帝國通信社는 當分 社長을 置치 아니하고 現常務取締役 越野宗太郞氏를 代表者로 하야 從來의 方針에 依하야 進行하기로 하얏더라

倉庫營業開始

十一日로부터 咸鏡線南部 新上驛에서 一般倉庫營業을 開始하야 一般貨物의 屋內保管을 取扱하게 되엿더라

人事消息

▲李昌輝氏(辯護士) 樂園洞一百五十一番地에 移轉
▲法專生修學旅行 同校三年生 二十名은 五日夜 滿洲에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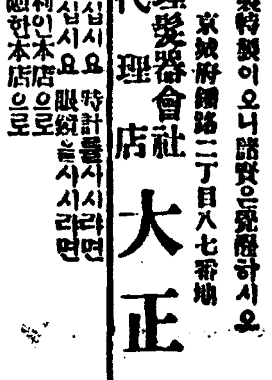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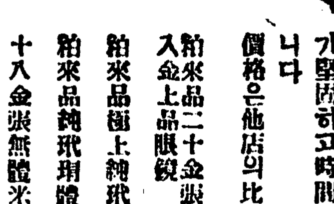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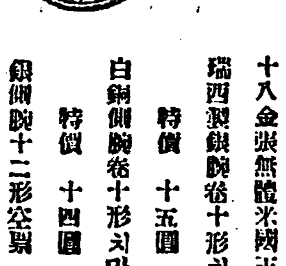
○ 中國의 排外運動은, 漸漸 熾熱을 더한다, 結局 무엇을 消盡할 것이냐.

○ 그 火焰이, 비록 直接當面의 障碍物은, 消盡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旋風을 招來하고, 雲雨를 喚起하고 말 것은, 勿論이다.

○ 이제, 東洋의 天地는, 實로 山雨欲來風滿樓의 趣가 잇다, 窮한 者의 바랄 것은, 現狀의 變遷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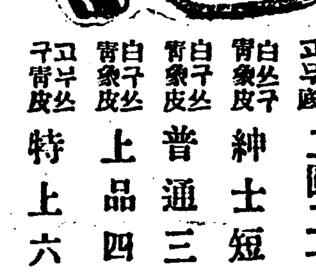
東華理髮器會社特製品大革新賣出
理髮機械器具並付屬品
個人一家族一揃 理髮 一家共同使用키 便利한 의 特價提供
壹組特價參圓五拾錢賣出

十二種三圓五十錢
一揃品名 理髮機械 一挺 面刀 一挺 가위 一挺 빗 一個 … 耳塵버개 一個 … 自由로 드리옴
眞正한 鋼鐵製 特製이오니 諸賢은 愛顧하시오
東華理髮器會社 總代理店 大正商會 京城府鍾路二丁目八七番地
○오십시요 ○오십시요 眼鏡 時計를 사시려면 品質 조코 廉利한 本店으로 時代要求에 應한 本店으로

瑞西製純銀側十六形十五石入 치마꾸 特價 十圓五拾錢也
本號는 當會社와 本店과 特約한 時計로 機械가 堅固하고 時間이 正確하고 形態가 美麗합니다
價格은 他店의 比할 바 아니올시다
舶來品二十金張 入金上品眼鏡 米國硝子入 天然水晶入 十一圓五十錢
舶來品極上純琉璃眼鏡 硝子入 八圓
舶來品純琉璃眼鏡 米國玉入 二圓五十錢
十八金張無體米國玉入眼鏡 五圓五十錢
瑞西製銀腕卷十形 치마꾸 十五石入 特價 十五圓
白銅側腕卷十形 치마꾸 十石入 特價 十四圓
銀側腕十二形 空꾸 特價 七圓八十錢
本店은 될수 잇는대로 地方人士에 便利를 圖키 爲하야 物品注文하실 時에 代金引換이라도 速히 送하오니 其他 時計 眼鏡이 具備함니다
時計及 眼鏡類 金屬商
京城南大門通四丁目六六番地
金光堂時計舖

紳士諸氏愛用品
○輕便하고 산뜻한 白靴



白쓰구 고무底 二圓二十錢
白쓰구 背象皮 紳士短靴
白쓰구 背象皮 普通 三圓
白구쓰 背象皮 上品 四圓
고무쓰 구背皮 特上 六圓
寸數를 明記
夏日의 一般紳士는 白靴를 準備하시요
京城鍾路二丁目一〇〇
東亞社製靴店

特產改良細白苧
◎實用品되고 ◎經濟品되는
特產改良細白苧
우리 日常使用하는 白苧는 改良細白苧로 第一 安全經濟되고 一疋이면 周衣 二件이 各各 朝鮮尺四十餘尺이오 其他 衣服에도 最良好합니다
◎一疋價金◎
特上品 九圓五拾錢
上品 九圓
中品 八圓五十錢
下品 七圓五十錢
紳士淑女의 出入服으로 適當하고 美麗 染色自由로 本店實物 宣傳키 爲하야 右記와 如히 絶對廉價로 販賣하나이다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五九番地
金寧壽商店

今日 發後晴

義烈團本部의新計劃

로령에독파원을파견하야지부를조직하고 共産黨과聯絡活躍한다고

중국북경(北京)에근거를두고상해(上海)와기타남북만주(南北滿洲)에지부를두고다수한모험분자만으로서 단원이되여 오날날까지 맹렬한파괴운동(破壞運動)을하여오든의렬단(義烈團)에서는 근래에 로령(露領)안에 잇는 공산당원들과 련락을취하야가지고 자금의공급을 어더대대뎍으로 활동을계속코저 얼마전에연해주(沿海州)로독파원을파견하야 충분히 정견(政見)을교환한결과 의렬단로령지부(露領支部)를조직하기로되여윤해양(尹海楊)최긔섭(崔起燮)김상렬(金尙烈)박두길(朴斗吉)외십여인이 회합하야 원만히조직한후 방금해삼위(海蔘威)에설로진스카야」 데이십이호라는곳에 사무소를두고 장차 엇더한방법으로 조선안에 운동을이르킬가를 협의중이라는데 이와가티 과거에 난호아잇던 단톄들이 차차합세하야 보조를 가티하는긔세가 점점사실로 나타나게되는 정보를접한 경찰당국에서는자못그리관심을 어오이주목한다더라

神出鬼沒의變裝術

일본인으로가장하고시내에 잠입하엿다는리종악의소질

얼마전부터 드러온다고 떠들던 의렬단원량건호(義烈團員梁建浩)즉본명리종악(本名李鍾岳)은 근래에 확실히 시내에 잠입한형적이 잇슴으로 시내 각경찰서 고등계(高等係)에서는극비밀리에 활동을게속중이라는데 권긔리종악은 상당한교육을 바든사람으로서 단장김원봉(團長金元鳳)으로부터 막대한 신임을바던 단원인데 국경이나 기타위험디대를 통과할때에는 반드시 일본인으로 가장하여가지고 다닌다는데 일본말이 극히유창하다하며 행동이 극히 긔민함으로 일즉해외에 잇슬때에도 일반에게만흔주목을 바든사람이라더라

女子共産宣傳 金敬愛

동소문박과 동대문밧게잇단말

해삼위(海蔘威)에잇는공산당고려부(共産黨高麗部)녀자선전원(女子宣傳員)김경애(金敬愛)(二三)가경성시내에잠입하엿다는정보를접하고 시내 각경찰서원이 침식을잇고 그자최를 찻는중이라함은 이미보도하엿든 바인데 김경애가 시내에드러와서 인사동(仁寺洞)모처에잠복중인것이 확실히판명되야 각서 형사대는압흘다토어 그를잡고자 하엿스나이미그때를안 김경애는 귀신과가티 인사동으로부터 그몸을감쪽가티 쌔어내여 사라지고마럿슴으로 각서형사는 닭쫏든개갓치 지붕만 처다보는격이되고 마럿섯든바 최근에다시 김경애가동대문박과 동소문박모처로왕래하는중이라는소문을 뎐하는자가잇서 형사대는 그곳을방금주목경계중이라더라

不謹愼한公醫

사혐으로 남에게매독잇다고가진단

로동자의 동을을매여 부자집자식을살리러다가 문대의 초점이된권남화순(全南和順)공의(公醫)리근용(李謹鎔)은 허위의진단을하야 양을잘아 먹으러하엿다고명예훼손(名譽毁損)죄로고소를당하엿다한다 사실은 지난오월이십이일에 화순 경찰서에서는 일반접객업자(接客業者)건강진단을 시행하엿는대 당디에서웅식 명영업하는 차애춘(車愛春)이라는 녀자를대하야진찰을마치고 그대는매독(梅毒)이 잇스니 륙백륙호(六○六號)를주사마저야 하겟다고 수십명군중압헤서 공개하엿고 그로인하야당디경찰서에서는 영업을정지식혓슴으로 차애춘은 아모리 생각하여도 병이업는데 이상한 일인고하야 광주(光州)도립의원(道立醫院)에가서진단을바든결과 매독은 고사하고 다른병이라도 권혀 조금도 업다는진단을맛고 생각한즉권긔공의의 혐의로집짓 허위의 진단을하엿다고 그곳경찰서에 고소를 데출하고 다시손해배상(損害賠償)을청구하엿는데 차애춘은 당디에서미인의평판이잇는 녀자이든바 작년분에리공의가 수심차나 놀너다니며 이상한 눈치가뵈임으로 단연히 거절하엿고 애춘의남편되는림(林)씨가일장책망한일이잇섯슴으로 일반은 이사건의진행을흥미잇게본다는말도잇더라(광주)

技競運動

平壤의열린 女子庭球

申請은十日外지

關西體育會主催와朝鮮日報平壤支局後援으로平壤에서開催될第一回全朝鮮庭球大會는十三日의女子部를비롯하야壯快한序幕이열리게되얏다그런대女子庭球大會의參加申請期는十日까지(昨報의七月은誤植임)이며他地方參加團援助의應分의하나이라도도읍고자하야優勝團體의車費를提供한다함은旣報와갓거니와더욱히選手의合宿할宿所를指定하야主催側으로부터親切히案內할터입으로他地方參加團體는미리主催側에通知함이조켓다더라

26對4中央勝

中央對延專野球戰은四日午後四時頃부터市外延專球場에서行한바延專正投手의出場하지안음으로反하야中央의猛打續出하야二十六對四로中央軍大勝

蹴球리구戰延期

市內健康運動部主催의第一回蹴球『리구』戰은여러가지事情으로因하야十二三의兩日로延期開催하기로豫定이든바不得已今秋로延期될듯하다더라

震災때遺失物

텬재라고 텰도국에서책임안진다

재작년일본관동(關東)대디진당시에 대판뎡거장에서 추뎐현능대역(秋田縣能代驛)까지보내는 필육 륙백여원어치가 동해도선고도역구내(東海道線高島驛構內)에서 도적을마젓는데 텰도국(鐵道局)편의관리가불충분하야『일허버린것이라고 물건보낸 대판시시천신상뎜(市川信商店)은작년팔월에 텰도국을걸어 손해배상소송을 대판디방재판소에데긔하야온바이래그재판소에서 심리중이더니 지난삼십일불가항력(不可抗力)에의한손해라고 소송각하판결을 하엿는데 이판결로인하야 동경(東京)과횡빈(橫濱)방면에서도적을마진텰도화물수십만원은텰도국의책임이업게되엿다더라(대판뎐보)

北栗爭議公判 審理終結

변론만은 륙월륙일로연긔되엿다

황해도재령군 북률면 동척(東拓) 소작쟁의 사건으로 세상의 이목을 놀내인 상해피고인(傷害被告人)김계윤(金桂潤)외오명은 재령디방법원 지텽에서징역각륙개월 언도를밧고 평양복심에 공소를신립하얏든바 그공판은 지난사일 재등(齋藤)관리의 배석판사의 렬석과 대소(大沼)재판장안(子安)궁내(宮內)량검사의립회로 개뎡되엿는데 피고의심문을 마친후 한근조(韓根祖)삼정(三井)량 변호사의변론은연긔되야 오는륙일에 다시개뎡될터이라더라(평양)

法相의逢變

차시간새닭에 속력을다해가다가 구렁에둥굴엇다고

소천법상(小川法相)은사일에부산현도견뎡(稻見町)에잇는정우회지부대회(政友會支部大會)에출석하고도라오는길에오후네시경승되야 석동(石洞)발 렬차를타고저 일동은자동차를타고 뎡거장을향하야가는도중 차시간이느젓슴으로 권속력을다하야 다라나다가 마츰 석동부근송현촌(松峴村)압헤잇는 내얼덕(川岸)에떠러젓섯는데 법상은다행히무사하게되여다유차로금택(金澤)으로갓다(부산뎐보)

中國人示威와 上海朝鮮人居留民

중국인과련락하야무슨일을한다는정보로일경긴장

중국상해(上海)에잇는일본방적회사(日本紡績會社)의파업을비롯하야 상해남경(南京)북경(北京)방면에잇는 각공장상뎜과밋학생까지 권부시위운동을하는동시에형세가험악하며 인심이 흉흉하야일본인학살단(日本人虐殺團)까지조직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와갓거니와 상해림시정부(臨時政府)에서는 이긔회를타서무슨 목뎍을달코자 매활동중이라는데 모처에드러온 정보에의지하면 그곳에잇는 독립단원들은 그곳○○○ (○○○○) ○○를 암살하는동시에 재류될본인을 권부축출하되 만일듯지안는배에는 ○○하기로 중국인측과 련락하야 방금 대활동중이라하며 또한편에서는 이긔회를타서 모종의목뎍을 관텰코자 다수한 무리와목한을가지고조선내디에 침입하고자 활동중이라는데 이정보를 접한 ○○국과○○○부에서는급히국경각방면에엄중한경계를명하는동시에시내각서에도 활동할것을명하엿다더라

慶北管內雹害

칠군이우심

이미보도한바와가티지나간오월삼십일밤에 쏘다진 폭우중에우박이석겨 떠러졋슴으로 인하야경북칠곡(漆谷)、선산(善山)、경산(慶山)、경주(慶州)방면이 가장만히왓스며 그중에는 경주군이개면에 월곱동리를련하야한 일자로근너가며 쏘다저서 일곱개의 묘사로경북관내의 박재피해디가 일천이백뎡보에 달한다하며야채(野菜)는 자최조차업서지고밀 보리、상동속도긘열상태가되엿는바 그중에도 참혹한것은 번오궁시기를 멀지안케압두고 모자리를버리엇슴으로 이것이 대일큰문뎨이라는바 경북도령에서는 디방과에 근무하는중천(中川)속이현장에출장하야손해를 묘사중이오 구제책을강구중이라더라(대구)

關東一也院에 긔숙사설비

동경에잇는 관동일야학원(關東一也學院)에서는 멧달전부터준비중이든 음악회준비가 완성되야 오는륙일에 보지신문사강당(報知新聞社講堂)에서음악회를 열터인데 이번음악회의 수입으로는 긔숙사를짓는것이 중요한 한가지라더라

空家一千五百戶

경성안에뷔인집의수효

경성부에서는 수일전에 부내에 잇는뷔인집(空家)을묘사하여본 결과 경성의총호수 륙만팔천팔백사십일호중에서 뷔인집이일천오백칠십호이엇다는데 이를 작년 십일월 한참긘핍할때와비교하면 오히려뷔인집의 수효가 만히줄어드른세음이라하며 뷔인집이 데일만키는 창신동(昌信洞)의일백이십사호를위시하야마포(麻浦)종로사뎡목(鍾路四丁目)한강통(漢江通)원뎡(元町)등디가 가장만타한다

京城에오는戶數

이사가는 호수보다만타

오월한달중에 경성안의 호수이동(戶數移動)을보건대 경성안으로 이사하여드러온호수가 사천팔백오십륙호이며 경성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간호수가 사천삼백구십호라함으로결국사백륙십륙호가더증가되엿다한다

『長』이란것을

긔회로협삽하라다가 중국관헌에게취됴

간도연길현 수신향 데오갑사도구(間島延吉縣守信鄕第五甲四道溝)에사는 리병식(李炳植)리춘화(李春化)리병권(李丙權)세사람은 본래집이극히 빈궁하야 중국사람(中國人)의고용사리로 근근히사라가던터이든바작년한재로인하야 더욱히먹을것이 업서집안에 잇는늙은부모와 어린처자를 먹여살릴도리가 업서할수업시중국(中國)에서금지하는 내디(內地)소곰을등에지고가만히몰아다니면서 쌀을 박구어이떠까지 생명을보전해오든중 십여일전에 전긔세사람은 또소곰을지고 오다가그만 동현데사구경찰(同縣第四區警察)에게발각이되야 즉시국자가(局子街)로압송하엿다는데 이제 이사건에 대하야 동현수신향데오갑사도구 갑장(同縣守信鄕第五甲甲長)고성련(高成天)이라는 사람은동현두도구(同縣頭道溝)에사는 리수광(李秀光)박운해(朴雲海)라는 사람과 공모하고 염관(鹽官)에 교섭하야오십사원의 벌금을물고 박면케한후중간에서 협잡을 종해먹으려고 권긔붓잡힌세사람에게 대하야는일백삼십원을내기로하고곳 돈을 내여노으라고 야단을치다가마츰내내유가발각되야지금경국경찰소(小屯派出所)에서는엄중이 조사중이라더라(간도)

목뎍이라더라

慶山署에잡힌 徐東日

경찰서는 아즉도활동중이다

지난오월이십구일에경북경산서(慶山署)에서 의렬단서모(徐某)를 데포하엿다함은이미보도되엿거니와 그후에 경북경찰부고등과(高等課)에서는최형사를 동원하야 엄중히취됴를 진행하든중 지난삼일에 최형사가 도라오자마자 고등과에서는 또엇더한 단서를어덧는지 알수업스나 형사세사람이 자뎐거를 타고 시내각처로다니며 가택을 수색하고 계속하야 활동중이라는데 전긔경산서에 검속된이는 본뎍을대구(大邱)에두고오래전부터중국북경(北京)에가서잇든서동일(徐東日)(三三)이라는청년이라하며 아즉까지 사실은 발표치안코 비밀에 부처가지고잇는바 련루자가아즉도경북방면에잠재한듯한단서를어든모양이라더라(대구)

落雷가殺牛

논갈다가

강원도텰원군텰원면관뎐리(鐵原郡鐵原面官田里)사십칠번디 장상봉(張相奉)은지나간이십칠일 리세교(李世敎)소유답에서 소를몰고논을갈다가 갑자기 소낙비가쏘다지며 벼락이 떠러저소를죽엿다더라(텰원)

巧妙한 貯金詐欺

녀자를속여 긔막히는도적놈

시내숭인동(崇仁洞)이백팔십칠번디변구영(邊龜榮)(三二)이는그전부터 친교가 잇는종로륙뎡목(鍾路六丁目)일백십오번디리성녀(李姓女)(二三)가금년일월부터광화문우편국(光化門郵便局)에갓다더금하는 사백원을 눈치를 채이고 자긔도미리돈 사백원을 준비하엿다가 과연그날이되자 리성녀의 뒤를쏘차광화문우편국에 이르러 리성녀가더금을하고난다음자긔도역시그사원을리성녀의 주소와 명의로써 더금하여가지고 즉석에서 사람의눈을괴어사원을 감쪽가티 사백원으로 고친후 도라오다가우편국뷔간에서 리성녀에게 자긔도돈사백원을 더금하엿는데 아주머니는 얼마나 하엿소하며그더금통장을보는데하다가슬적박구어가지고 그후다섯 차례에 나누어 단오십원을 남긴후삼백구십구원오십전을차저먹어버렷는바 그뒤리성녀는 이쌔닭도모르고 다시돈집을 흥정하여노코 그더금한돈 사백원을 우편국으로차지려갓다가 비로소 이와가티된것을 알게되여 경찰에고소하엿스나 범인변구영은 이미그자최를감추고 마럿슴으로 종로 동대문의두경찰은범인을잡고자 고심중이라더라

鐘路署에 黃金贓品

뎐당포를속여 사긔하든장품

오월오전에 시내종로경찰서 법조실(司法調室)에는 휘황찬란한 황금(黃金)의 귀금속이산더미가티 싸혀 보는자로하야곰 의아의망을 이르키게하엿는데 이제이 물건의 출처를들은즉 통동(通洞)오십번디 일본생명보험(日本生命保險)감독서긔(監督書記)송봉섭(宋鳳燮)(二二)이가 지난오월십구일부터 십일일의 사이까지 남대문통일뎡목(南大門通一丁目)텬보당시계포(天寶堂時計舖)에서 십팔금장(十八金張)이십금장의『알미니움』시계를 한개에오원식으로 스물다섯개를 사고다시금장시계와 십팔금시계 네개와 안경(眼鏡)등을 사서 금장에는 참팔금과가티 이십금이니 십팔금이니 하는표를 찍은후그아우관철(寬澈)과 공모하야 광화문통(光化門通)김수진(金水眞)의 뎐당국에 갓다가잡힘음이라고속여가지고 한개에 십원이상을바더 전후십여차례에 근오백여원의 사긔를하여온것이 최근에 발각되야 방금종로경찰서에 형뎨가 모다데포취됴를밧는중으로권긔 금귀속은 모다그장품인바 그는 이외에도 엇더리업는 수형(手形)을가지고 시계포주인까지 만히속힌혐의가잇다더라

『쏘트』顚覆犯人

금뎡에서데포 련루자가잇는듯

긔보=삼일오후에 한강 에서 시내어성뎡(御成町)사는김승범(金承範)외이명이『쏘트』를타고 고기를 낙근것을엇던자가 배를 전복식히고 도망하엿슴으로소 관룡산서에서 사일오후에 시내금뎡(錦町)일백이십번디사는렴공림 래복(康太卜)(三五)를검거하엿는대련루자가잇는듯하다더라

巡査殺人事件詳報

호긔로함부로따리다가 필경사람을죽이고말어

경북청송군 안덕주재소(慶北靑松郡安德駐在所)에재근하는박원서(朴元緖)(三二)라는순사는지난달이십오일 오후다섯시경에동면지소동이백칠십구번디 김성칠(同面紙所洞二七九番地 金星七)(三三)이를 함부로 따리어서죽이엇다는데 그원인은청송군령재무계원김윤희(金潤熙)외네사람이 밀조주취톄의사무로권긔 안덕면에 출장하야 그곳주재소에교섭한결과 박원서라는 순사의동원을바러가서 그면지소동 김성칠의 집에 드러가서 밀조주를 발견하야 곳심문중에 김성칠이의 실부김헌식(金憲植)(六二)이가 나와서술단지를 깨트려버리니순사박원서는공무집행방해죄로 김헌식을곳포박코저 하고 이것을본김성칠은자긔아버지 욕보는것이 미안하야 만류하려다 따려다가나중에는집헝흔 단장으로 란타하고또주먹으로 두어차례를쑤시 지르매 권긔김성칠은 두어마듸 소리만 치고호흡을통치못하엿고 이윤을하엿스나 아모효력이 업고 종시그모양으로그이튼날오전두시경에이세상을 떠낫는데 이소문을듯고그부근경찰관은다수히 출동하야 권긔박원서를데포하야경찰서로보내고안동자혜의원장을불러서사톄를검안한결과 타살이판명되엿다더라(의성)

軍用地耕作問題로 五百名連署歎願

면장에조합장겸한하씨가 소작권이동으로살수업다

경남창녕군 대합면(慶南昌寧郡大合面)과경북 달성군구지면(慶北達城郡求知面)량면을 걸처잇는군용디(軍用地)에는 당해면주민 칠백이십 여호가명맥을 달다십히 하고잇는중 그곳에는원래 창녕군텽감독아래에서 소작조합(小作組合)이잇서대합면장하도윤(河道潤)이가조합장까지 겸임하얏는바 전긔하씨는 소작조합장(小作組合長)이란 지위를 리용하야 서긔김성수(金性洙)와부동하야 가지고 주민의소작권을 함부로 강탈하야 자긔의친척과 하인들에게 주고 홀은가는 소작인중에라도 자긔에게 진상물이업스면 함부로소작권을 강탈함으로 주민들은참나못하야 오백여명이 련서하야 소관창녕군령과 밋경남도령과 소관경찰서에 하소하엿스나당국자들은 하씨편의말만 밋고도모지 아모하치가 업슴으로 주민들은다시 리병수(李炳壽)씨등두명의 대표를선뎡하야 현재대구(大邱)에와서두류하면서사건을변호사에게 위임하야 선후책을 주선중이며 또한편으로총독부와 밋동산록군 당국자에게까지교섭코저하는중이라더라

뢰물먹고이작?

소작인편말

이사건에대하야 현재 대구에와서 묵는중인 동면소작인대표 리병수(李炳壽)씨는말하되면장하씨와면서긔 김씨가부동하야 다른사람의 련고권임도 불구하고소작권을 쎄서다가 이작한것으로 우리가 됴사한것만이 벌서수만평이오 이와동시에 뢰물바다먹은것이 가격으로치면 얼마일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러나그는셰력이 잇슴으로 엇지지못하고소위관텽에서 됴사나왓다고 하는이까지 그들의 큰력속에서소작인의 의견이라고는 드러보지도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할수업 오백여명이 죽기로쎄뱅쎄하고 어대까지든지 대항하야보겟다고하더라(대구)

妻의不貞으로 吉日을가려移舍中

딸은중로에서병으로죽고 오든소는횡액으로큰화상

경긔김포군 대곳면 거물대리사백륙십번디(金浦郡大串面巨勿大里四百六十番地)에사는 심의건(沈宜健)의 쳐민명순(閔內順)(三六)은 그리웃에 사는최모(崔某)와수년전부터 비밀한정을통하며 지내다가 결국은그본부되는심씨에게 여러번발각되엿는바 여매도몹시맛고 싸홈도 여러번 하엿스나 종래 그버릇을고치지 아니함으로그 본부심씨 는그것을참아 보기실혀서 나종에는 다른곳으로이사를 가기로작정하고 여러곳으로집을 구하는중 동면대릉리(同面大陵里)사십륙번디심상호(沈相浩)란사람의 집과 서로 밧구어 들게되여서 심씨는곳이사를하려고 하엿스나 동리사람들이이사는아모날이나못가는법이니 됴흔날을 가리어서이사를 가라고함으로 그근처 어느무당에게가서 이사를 가기로작정하엿는데이사가기몃칠전부터 권긔심씨의 딸갑순(甲順)(三)이가무슨병으로 몹시알키를 시작하더니이사갈날이닥쳐오도록조곰도 낫지안엇스나 이사갈날은 닥쳐왓슴으로 세간짐을 옴긴후심씨의장모되는 김흥식(金興植)(五五)이가권긔몹시알는 갑순이를 업고새로이사가는집으로 가는중로에서 어린아이는 그만참혹히 죽어버렷슴으로 곳파뭇고 그죽은아이의입엇든옷과 포대기가지 귀농은 큰길가운데다가 태워버려야 조타한다는말을 듯고 그말대로하얏는데 그때마츰 동면대릉리사는 성환련(成煥天)이란사람이자긔소에다가 권긔심씨의나무 한바리를싯고그불노흔길을 지나오다가 불길이 싯고가는나무바리에 옴겨붓기시작하야 쓰려야 쓸수가업고불길은점점 온나무바리를뒤덥흐매따라소는 뜨거옴을견데지못하야소리를지르면서이리뛰고저리뛰고일며할대로화상을하얏스나살기는하겟다더라(김포)

武裝團襲來回數

一個月에三十九件

수림이울창할사록그들의 활동이더욱맹렬하여진다

당국에서 됴사한바에 의하면금년사월 한달중에 조선국경에나타난 조선인무장단(朝鮮人武裝團)의 습격회수(襲擊回數)는권후삼십구회로 그전달보다도 여덜건이나 늘엇다한다 한달동안에 설혼아홉번을 돌격한무장단의 중요한습격은 영림창작업소(營林廠作業所)를 습격하야 소총(小銃)하나 륙혈포를 쌔아서간후 불을노하 됩소케하고부근 조선사람의집에 묵고잇는일본인한명을 쏘아죽인일을 위시하야 경찰관과 충돌된건수도상당히만흔데 이가티 습격한무장단의인원은 일백륙칠십명 가량이라하며 그들에게 잡히여가서 거처불명된자가 두명이오 부상한자가 세명이오 그들이가져간금액이 이천삼백 십오원이라는바 여름이되여 수목이울창할사록그들은 더욱활동할 모양이라한다

二八少婦逃走

부부간불화로

사일오후열시경에 시내 서대문뎡일뎡목삼십구번디 류호경(劉浩成)의 쳐김봉순(金鳳順)(二○)은 집안사람이 업는틈을 타서 자긔의 옷몃가지를싸가지고어데로 도망을하고 업슴으로 집안사람들은 새벽에 서경에 수색원을 하엿스나 아조종적이 살어지고 말앗다는데원인은부부간불화로인한것이라더라

假統義府員에게 博川警察이大驚

술이취해서내가동의부원이라고 경찰을놀랜죄로이십일구류처분

평북박천디방(平北博川地方)에는무장단이 자조출몰함으로 경찰에서는 마음을노치못하고 주야로 경계중이든바 지난일일오후열시경에 박천읍남부동(博川邑南部洞)안문학(安文學)의 집에박천면 송덕동(博川面松德洞)사는 김봉식(金鳳植)(三三)이란청년이 취하야 말하기를 우리는대한통의부 삼중대원(大韓統義府三中隊員)인데권일에 우리단원네명이 이곳에와서 권사하엿슴으로 친일파를 살해코자 우리단원오명이 무긔를가지고 청안한것이라한후 도라갓다는바 이소식을들은 경찰에서 다는즉시활동을개시하야 김봉식(金鳳植)을 데포취됴한결과 김봉식이가 술이취하야 엉터리업는거짓말을한것이 판명되엿스나 경관의 가슴을놀내인죄로 이십일구류에처하엿다더라(박천)

京城敬老會開催

敬老尙齒는古來의美風입니다 그럼으로今般京城居住의八拾歲以上되는日鮮人各位를遺漏업시招待하야그長壽를祝賀하라는생각으로이미調査를맛친後請牒을보냇슴니다만은萬一通知에빠지신이가잇스면來六月八日까지에京城日報社內敬老會事務所까지通知하여주시압

主催 京城敬老會 有田音後

後援 京畿道、京城府、京城日報社、京城日報社、每日申報社、朝鮮新聞社

六月十四日午前十時開始 於 京城劇場

妻쌔기고돈쌔기고

간부가본부를거러고소하엿다

전라북도 전주군 이동면 상생리(全北全州郡伊東面相生里)에사는김종량(金鍾良)(四五)은현재전북철도 주식회사선 전주역(全州驛)에 재근중인데지난오월말경에 전주대정뎡(全州大正町)오영진(吳永鎭)(四○)과오영진의안해 뎡희경(鄭熙慶)(三五)을걸어 전주경찰서에 공갈취재죄로 고소를 데긔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지난이일에 피고소인 량인을검속하야 방금취됴중이라는데 그고소한내용은 권긔오영진은 멧해전에 전주야소교병원(全州耶蘇敎病院)에서일을보던 자인데그병원에서 나온후로 일뎡한 직업이업시 자칭의사 아모라하고사방으로 도라다니면서 어리석은사람들을 속여서 병을고처준다고하든중 재작년가을에 김종량의딸 동련(同蓮)이의 병을고처준다고 얼마간 다니다가 동년십이월경에 당시 김종량의 안해인 뎡희경과비밀히 정을맷고오든중 오영진은 뎡희경을 백방으로꾀여 김종량과리혼케하야. 작년칠월에 희경은드듸여자긔 남편과 리혼하고 가서 살먹은 딸동련을 다리고 가서 오영진과권긔주소에서동거함으로 그후에김종량은두차 자긔딸을볼려보내라고하엿스되종시보내지아니함으로 하는수업시 금년삼월팔일에 오영진의 집에차저가서딸을내라고담판을하매희경은 역시딸을 못주겟다고하면서

치마를버서들고바느질

하는모양을하고 잇슬지음에 돌연히오영진이가밧그로드러오더니김종량을보고『네가 내안해를 간통하지아니하엿느냐하며나는 남이붓그러워 다시희경과 동거할수가업스니 ...는고사하고전주에서살수가업서 일본(日本)이나 또는 구주(歐洲)로가겟스니려비(旅費)로천원을내라고공갈(恐喝)함으로 어리석은 김종량은 어이가업서 도로혀자긔변명만하고말도찾지못하고 그커도라왓는바 그후오영진은 희경을 식혀전주역으로 김종량을 차저보고 오씨가려비를 바더내라고 가진협박와협박을 함으로 도뎌히 일시를견댈수가 업스니 권일의부부정의(夫婦情誼)를생각하여돈몃백원만달라고 간청케하엿스되 김종량으로부터 할수업다고거절을당하매다시여러차례

강청케하야

지난사월이일에칠십원(七十圓)과동월이십일에 오십원(五十圓)을밧고 또다시 희경을시켜 자긔에게오영진과도 살수가업게되엿스니 위자료(慰藉料)로 오백원(五百圓)을내라고 전주디방법원에청구소송까지데긔케하엿슴으로김종량은 그들의간흉한 행위를분히녀여 권긔와가티 고소를데긔하엿다더라(전주)

自家放火犯人

취됴후검사국에

평양부 차관리 일출상뎜(日出商店)주인이 자긔집에방화하고 평양서에서취됴를 밧는중 이라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지난삼일취됴가 곳남을 따라평양검사국으로됴서(調書)와함씌보내엿다더라(평양)

强盜絕食

장래를생각하고 죽는것이낫겟다

긔보=룡산서(龍山署)에데포된 강도범인중 황해도평산군(平山郡)출생리장순조(張順祚)는 죄상을일일히 자백하는 동시에 권과를후회하고또는압길이암담함을 비관하야 스사로일즉죽는것이 낫겟다하야지난 삼일부터 절식(絕食)을 단행하고 도모지 먹지아니함으로 동서에서는 여러가지로회유를하는중이라더라

殺人犯에

무긔징역구형 판결은십일일

시내삼판통(三坂通)륙십칠번디 쌀장사하는박명순(朴明順)이를 죽인 살인강도사건의 피고인부내강긔뎡(岡崎町)십삼번디박윤만(朴允萬)(三二)에대한공판은사일 오전열시경부터 경성디방법원에서 열렷는데 검사는무긔징역(無期懲役)을구형하고결심하엿는바 판결은 십일일에언도하리라한다

元友觀氏保釋

출옥은금명간

뎡재달사건(鄭在達事件)으로오래동안 미결감중에잇든 원우관(元友觀)씨는그동안보석을신청(保釋申請)중이엇든바금오일에허락되여 금명간 출감하게되리라한다

종명자

▲충남온양군염치면중방리(忠南溫陽郡鹽峙面中防里)정긔영(鄭琦永)(三二)이는▲십년동안이나그동리구장으로잇스며동리민이한개나수재를당하는때면▲군당국과교섭하야 동민들구제하여오던귀특한 구장인데 ▲작년 한재는 너무섭하야 조선 안에서는부족하다고 이십여명이 서명진청서와 려비를 어더가지고지난삼월 삼구일 일본대판상애회(相愛會)를차저가서돈어들이약이를한즉▲대판은상업디임으로 잘안될터이니 동경(東京)으로가라고함으로 동경에 가서본즉 언어풍불통할뿐아니라누구에게대하야▲하소연할곳이업슴으로 련황폐하와 섭정궁뎐하와 리왕세자 뎐하와 각부대신에게까지 탄원서를써서 우편으로부송한후 사오일을 기다렷스나 아모소식이업고 ▲려비도 업서서진퇴양난일뿐아니라자긔의큰뜻을 알아주는 사람이업슴을비관하야▲자살을하려고하다가경시령에 발각되야 설유를듯고겨우 밧고귀국하엿다고

正誤

五月十八日、廿三兩日에發行된本藥房廣告中「六味丸의藥價」와「調經種玉丸의藥價」가서로밧구여사옵기訂正함

漢藥乾材及 洋藥、賣藥 貼藥其他各 種藥品製造 並醫療器具 醫書類販賣

登錄商標 本藥舖製品에는此商標를注意하시오

京城鍾路洞一七九番地

天一藥房

長電話光化門七五九番 振替京城三○七七番

婦人補血調經孕胎藥

調經種玉丸

◇主効 調益榮衛、滋養氣血、衝任虛損、月經不調、臍腹疼痛、赤白帶下及其他一切婦人病

◎古方을그대로依據하야精製한唯一品

藥價 廿日分金六圓 十日分金三圓

補腎潤血壯陽滋陰劑

六味丸

◇主効 腎水不足、腎衰精弱、腎虛遺精、諸般淋濁、元氣不足、先天補損、壯陽滋陰

◎茯令、澤瀉及其他를極上材로擇한것

藥價 一個月分=金三圓

太補元氣興陽不老劑

蔘茸强壯丸

◇主効 諸虛百損、五勞七傷、降心火、補脾胃、添精補髓、益氣和血、强陽滋陰、重病回復

◎蔘茸爲君으로高貴한補材를配合한것

藥價 十五日分=金五圓

補藥案內

藥이란무엇이든지 그藥材가마는더욱補劑藥으로서 藥効가充分치못한것은 참말히冷水를飲用함만 不如한것입니다 本藥房은此에 慮함을말지아니하야 그處方을擇하고 良藥을選하야 左記三大要藥을 製造하야서 널니服藥家에 提供하오니 病잇고 藥잇기를 苦心하시는 여러분은 購讀마시고 本藥房에注文합시요 貼藥도 低廉價로 擇材調製

慈善一束(一)

가뎡·부인

력사상에 (一) 이름난녀성!

몃처만사람의눈에서 눈물을자내인소설가 「쎄ー챠、스토우」夫人

여러분! 멸개의도토리와한개의밤이잇스면우리는어느것을집어가지겟슴닛가? 백개의류리알보다한개의보석이더귀할것이요평범한천사람보다탁월한한사람을세상은더요구할것이올시다 그러면우리는평범한사람의수평선을떠나탁월한사람이됩시다、다시말하면우리는위인(偉人)이되기를노력합시다、위인이라함은엇더한사람을일커름이냐고누구나「일잘하는사람이면위인이라고」—세상에일하지안는사람이업습니다、그러나모도가자긔를위하야만하는일에지나지못합니다、위인은자긔의명예를어드랴고욕된디위를탐내지안습니다、위인은돈을위하야일하지안습니다、위인은자긔의리익을취하지안습니다위인은일을위하야자긔를위하야다른사람을위하야——즉다시말하면공존공영(共存共榮)을위하야노력하는것이올시다、선련쟁으로위인이어더잇스리오누구나자긔의뜻하는바와자긔의노력하는바를따라위인의월계관을어들수가잇습니다、긔자는이제동서와고금을통하야우수한부인일홈난규수들의평생사업과그들의생애를소개하고저합니다、녀권운동이겨렬한오날날우리조선에잇서서넷녀자의지난자최를밟옴도과히헛된수고는아닐가합니다。

「아푸리가」서북해안 감람나무그늘속에 련진란만하게 날뛰는 검둥이의 무리들ー홀연히 그들의압헤는 백인(白人)의 검은배가달려드럿습니다 다라나는검둥이들을 함부로붓잡어 나히절고골격이 튼튼한사람은 모조리배에싯고 대서양(大西洋)을 가로건너 미국동해안(東海岸)에 도착하엿습니다 거들떠리도 사랑하는안해와 귀여운 자식들이 잇것마는 한마듸의 작별인사도 엄의루못하고 백인들의 무리한 압박아래 산천이낫설은아메리가『대륙에나리자 도수장에몰려가는소예와가티 가혹한 채죽을 마저가며 니른곳은 눈크고코큰흔사람들의 물건을매매하는 번화한시장,한번에 주욱버려노코『싸구려싸구려 검둥이가싸구려 젊은놈을사시렵시오 좀늙은놈을사시렵시오『이놈이 젊고는 튼튼하야 일을잘할직하다 이놈을

삼원에 파시오『검둥이들은팔려가는대로 밤낫업시 피땀을흘려가며 백인들의 종노릇을 하다가 나히들고힘이 약하여지면『생사는나의알배가아니다』하고내여쫏습니다 백인도 사람이요 흑인도사람인이상 인도상(人道上)에참아그대로 내여버려둘수업다하야 갑은이를 주창하고 올은이를 반대한그결과 서력일천팔백륙십일년부터 사년동안 계속된 커유명한 남북전쟁 마츰내승리는 정의(正義)로 도라가고말엇습니다 문학상으로 이권쟁을 촉진한시인문사는 실로손꼽을수업시 만헛다하여도 가하나 그중에수만흔 사람의마음을감동식히고 수만흔사람의 눈물을자아내게한 피눈물의소설『엉클、톰스、캐빈』(검둥의설움)만큼 위대한효력을 나라내인것은 업것습니다 본지면에 가장첫재로소개하려는녀걸(女傑)은 즉이소설저작자가

「쎄ー챠、스토우」부인이올시다 부인은 일천팔백십일년녀름에 「쎄처아나」라는 집에 출생하엿스니 집이매우 가난하고 더구나일즉이 어머니를일허 그의어렷슬때의 생활은 참으로 불행하엿습니다 부인의아이시절 일홈은「하리엣、에리사베스」이니 가정과학교의 교육은물론충분이바덧고 특별히 문학에크게 재간이잇서 열두살쩍부터 그의 글을발표하게되엿것다합니다 그는이십사세에 그의부친이 교장으로잇는 엇던신학교교수「스토우」씨에게 출가하야「스토우」부인이되엿스니 남편「스토우」는 부인의 련재를알고 문학으로정공하기를 권하엿섯답니다 그는 그후 이삼개의소설을 저술하엿스나 그다지일홈난것이 되지못하엿고 부인이마흔살되든 일천팔백오십일년이될엇던일요일저녁에 교회의만찬례에 참예하엿다가 문득몸을휘며떨고울불어 들의

참혹한죽음 이마음에 떠오르고 눈에어려서 그는참아 더오래그자리에 잇지못하고 집으로도라와서 가슴에 타는불을 그대로 긔록하엿습니다 그리고 그쌔에 열살과열두살된 자긔의 아들들에게 그글을 읽어주엇답니다 그들은 눈물을흘리며 『어머니세상에 제일불상한 것이종이구려』하고 말하드랍니다 부인은 자긔의쓴것을 우선『와싱톤』시에잇는『뎌ㅅ、타ㅣ리、에게보내여 그가간행하는『내순널、에라』라하는 신문소설에련재케하엿답니다 처음에는 삼개월동안의 예약이엇스나 독자들의 환영 나지아니하고 모든사람의 환영은 더할수업섯습니다 십개월만에야 겨우완결을하엿스니 그내용은『엉클、톰』이라하는 검둥이를

주인공으로 삼어노예주의의 참상을 여디업시그려내인것이올시다 미국은물론 세계문학계에서 천재불후의 일대걸작으로 굴지한바가되여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자 십일동안에일만부가 매진되고 여덟개의인쇄긔계를 밤낫으로운전하여도 오히려 여러사람의수요에 응하지 못할뿐아니라 륙개월동안에 삼십이넘는 인쇄긔계가 돌던차안에새로 생기게되엿스며 여섯곳의극장에서 한쎄에가터 연극을 흥행하게 되엿고 일년이못되여 삼십만부가 발매되엿답니다「스토우」부인의일홈은 세계에넓히퍼지고 평등자유의주의가 권승리를쥔쎠하야 노예의형컨은 미주텬디에서 살어젓습니다 눈에는노예업는 자유의 고향을보고 몸은 장미화향기로운 집에살며 마음에 큰십업시 깨이오면 흔연히영접하고 청명한일긔에는 사랑하는 개를벗삼고 정원에산보함으로 여년의생활을삼나가 일천팔백구십륙년에 팔십오세로 영서하엿습니다

◇(사진은「스토우」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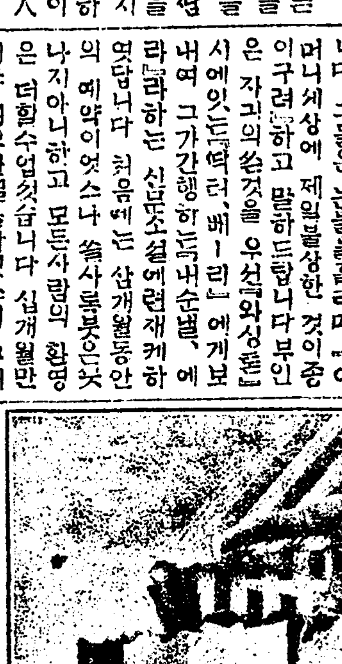
※신 영 화※

三友會第二回演奏

영화삼우회(映畵三友會)에서는 제이회 연주회를 시내관텰동우미관에서 본 육일오후 한시부터 개최한다는데 그연주 과목은 본보에소개한『嵐의孤兒』와『녀편네로이드』두유명한 활동사진과기타삼편의 유악과의 주악과 예기의음악등이라더라

嵐의孤兒 全十二卷 六月六日부터 우미관에상영

불란서대혁명이 일어나랴는 지음에 파리에서 멀지아니한식골에『헨리에타』와『루이스』라하는 고아인 어엽분두처녀가 잇섯다 그동생되는『루이스』는압흘보지 못하는고로 그 형되는『헨리에타』는 눈을치료하야주랴고그를 파리로다리고왓다 그쌔에 포악무도한 귀족계급들은 유산포림에 방으로나슴을이어 황음무도한 생활을하얏스나 하류빈천들은 긔아로인하야형제부모가이산하게되야 원성이마지막싸지 차올라 혁명의괴운은 점점익어갓다 『헨리에타』는 얼골이 어엽분까닭으로 귀족에게 붓들려가게되엿고 이러할동안에 눈못보는『루이스』는 엇더한두무에게 붓들리어 누덕이를입고 거리에서 거지노릇을 강제로당하게 되엿다『헨리에타』는귀족에게붓들려갓다가 자긔를구원하야준 기사『바ー드련』와사랑을하게되엿다 이사랑으로 말미아마 두사람은 감옥에들어가게되엿고 그후 얼마아니되야 불란서혁명은 일어나게되엿다 이 혁명의덕택으로 두사람은 방면이되엿스나『바드련』기사는 다른귀족이모조리단두대로가는동시에 그도항의 사형을바덧고『헨리에타』는그기사를 은익한죄로 가티단두대로가게되엿는데 전날 귀족권청시대에『헨리에타』에게목숨의구원을바든『단톤』이란정치가의구원으로말미아마 비로소 두사람이목숨을건지게되엿다는것인데 그려한 혁명가운데에서도 인간성은 어듸까지든지 업서지지안는것을뵈인다『드로시、씻쉬』양의자유스러운표정은 가장 판의홍미를 도듬만한 영화라할수잇다



『女로이드』

이영화는모험활극으로『뻥진로이드』나『조심부용』보다도모험활동하는배우가녀성인것만치더욱장쾌무비한것인대륙일부터우미관에서『嵐의孤兒』와 항의상영케되엇다이장면은녀자가자긔애인을뉘하야탐방긔자노릇을하다가원숭이를삽으랴고수십층집을더우잡어올라가는광경이다

진주부인 견학연긔 래십이일로

본보진주지국주최로진주부인견학단을 모집한다함은 이미본보에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동지국에서는 여러가지사정으로 인하야 부인견학의일을 오는십이일로 연긔하게되엿는데 금번에견학할곳은 진주자혜의원(慈惠醫院)에새로장치한 엑쓰광선과진주 우편국에가서 수천리밧게소식을 몃시간동안에 알수잇는던보는 엇더케노코 몃백리밧게사람의 목소리를 능히드를수잇는 던화는엇더케하는가를 볼것이요 재판소에가서 재판하는법을실디로보고 또한우리가 조석으로 먹는수도물은 엇더케하야 나오게되는지를 자세히 견학할터인데 모히는장소와 그외의모든주의사항은 권에보도한바와 갓더라(진주지국)

토쎄치는법소개 (六)

京城府崇仁洞朝鮮家兎獎勵會 金正一 述

막나온 토쎄색기는 발가숭이며 거의다 눈을 뜨지못합니다 그쌔

색기토쎄기르는법 젓먹는동안에

에는아무것도 다른것을 먹지안코 어미의 젓을먹음으로 그러케 위험과 곤난이업시 용이히자라납니다 그러나간컨으로 그어미 토쎄를 잘먹이고 잘관리하여야 됩니다 그리하야 충분히자양분을취토록 하여야합니다 이와가려하여야 어미토쎄에게서 젓이잘나며 병도듬지 아니함으로새기토쎄도 잘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려지기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할것은 어린토쎄의 차고때운것을 잘해야려 온도를 덕당하게하고 똥오줌을 잘쳐주고 또쳣떠러질때시에는 소화긔능이 약하여지오므로 먹이는물건은 아모쪼록 자양잇고 소화되기 쉬운것을 선택하고 또한편으로 덕당한 운동을 식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엇제든 나흔지이개월간은 양쳐하는법에 특별히주의하여 병도나지안코 발육이 량호하게됩니다

부인강좌속강 명륙일밤

인사동조선녀자청년회에서는 사정에의지하야 얼마동안 열지못하엿든 부인강좌(婦人講座)를 륙일밤부터다시 열게되엿는데 륙일오후팔시에는 리화학당(梨花學堂)교사로 잇는 김창제(金昶濟)씨가『혼인에대하야』(婚姻에對하야)라는문데로인사동그회관안에서강연할터인데일반가뎡부인이만히오기를바란다고

조선녀자청년회주최 데팔회 부인견학단 조선일보사주최

명륙일정오사지에남대문뎡거장압흐로모시오

◇데팔회견학

명륙일(토요일)에는 영등포에잇는 경성방직회사(京城紡織會社)와 조선피혁회사(朝鮮皮革會社)의두곳을견학하겟슴니다 경성방직회사는삼성표(三星票)와 삼각산표(三角山票) 등의 광목을짜는 회사임니다 조선사람의손으로 광목을짜는 공장은 여긔뿐이며 말어서매우자미잇고도 유익한구경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조선피혁회사는쇠가죽을달어서구두짓는 가죽을만들어내는회사입니다뻣뻣한가죽을달어서부드러운구두가죽과 단단한구두창이 되도록만들어내는 동안에는 여러가지절차가잇서 매우자미잇고 유익한구경이 될것을 확실히밋슴니다

◇주의하실일

이구경을 가시고자 하시는이는 꼭오정싸지에 남대문 뎡거장압흐로모아주시오 덩거장 압헤는 조선녀자 청년회원과 조선일보사원이 나가서 기다릴터이옵니다 가시면 아십니다

비용 은경성영등포간왕복차비삼십전이며 단여와서는 남대문 뎡거장 압헤서 해산할터인즉 집이 머신이는 집에가실뎐차삭만 가지시면 될것임니다

시간 은오정에모아서영등포에가서두회사를구경하고세시사십륙분차에 돌어오시면 경성에는 네시오분에 도착될터이며 느지셔도 한시간가량밧게는 아니 느질것임니다 다만뎜심은 충분히잡수시고나오서야됩니다

멍텅구리 련애생활 (182) 후겨

(一) 쫏기어나와 반항하는 멍텅이를 (二) 오래동안 따려보지못하다가 힘껏 (三) 공괴롤리듯 제기차듯 (四) 필경은 대문밧게 혼도

學藝

第四回 美展印象記 (五) 金復鎭

◇라이락의꼿 李承萬 西洋畵四等

士의讚 李用雨氏作

대뎌 이분은아직자리를잡지못한것갓나 바로말하여버리면 허수애비가티 발바닥을쌍에다 부처보지못한것 갓다는말이다 今春協展써 이분의作品을처음 보앗슬적에는 대단好感을바덧것스나 今番出品한「士의讚」은 아모러케던지잘보아주엇스면하는생각을먹고보드래도 딱對하면고만실증이 나버리게된다 勿論새로운것을차질냐고 허번덕거리는것은極口稱贊하지만은이러라는基礎的準備가업시 새로운彩色만을괴롭게陳列한다던지 複製비슷한 雜雜할그림을그리라는것은到底히贊成할수업는것이다 「士의讚」만드러보드래도混濁된色調와 종幼稚한構圖여긔다가 蕭森인東洋畵的畵風이것들이無理情死를한것가티뵈이고그나마조熱情이업시그린것갓타 도나개나박한다는 格으로조금지버쩍다가노친것갓다 이길이畵家로서의 가장危險한길이다 압호로는自己反省을하엿스면한다그러고손으로그리지말고 머리로그리라고忠告한다 細部의缺點은쓰지안는다

日陵 盧壽鉉氏作

『稱贊이아닌 評文은 쓰지안는게조타』고 日本엇던文人은말하엿다마는 나는뒤밧구어稱이아닌批評은쓸가닭이업다고한다 稱贊하라면쓸것도업시잇만떡당으는것이第一날것이아니냐 고만두고 이분의作品은各色人種比較에힘을드린것갓다 朝鮮女子에朝鮮옷입은西洋兒孩(骨格血色 顔面)을그려노앗스니洋鮮融和를主唱함인지 이다음부터난이런것은그리지안엇스면한다 그보다는 解剖學冊폐지라도뒤젹거리는것이 習신工夫가될듯십다 엇던意味에잇서『포스타ー』로는成功하엿다고할수잇다 木幹 나무집 女子의下半部遠景 이런곳에缺點이뭉치여잇는것만發見하엿다 이분에게는이만하겟다

鱖魚 金殷鎬氏作

이분의作品은 괴상한趣味에잔득붓재핀것갓다 大體로불빗波紋가튼것을 어느쌔던지 뚝갓게그리게되니참말로알수업다 協展에出品한「金魚」도이모양이엿다 심지어水中岩까지도그와가튼것갓다 勿論낫부다고말하는것은아니다만은어직안하면실증도날쌔인데하는생각이업지안다 무엇이던지推測하야判斷을내린다면그릇되는일이만흔것이다 더구나繪畵에잇서서야말할것도업는것이다 鱖魚가모다입을버리고잇다 한참드려다보면『우허』하는소리가들린다 그림속속에서 나오는소리가아니라 바로등뒤서난다任細하게는모르지마는 구경군들의입속에서나오는것갓다

梅와鳩 李英一氏作

누가보든지 귀여워할만하다 그러치마는내생각가터서는李象範氏의作品이다 대단히고흔作品이다 蕭瑟보다떠러지는것갓다理由는다가는「레ー베두」에잇는作品이나朝鮮의 마음이적게나타난것과純化되지못하기쌔문이다

落花 (락화)

봄바람 번역

九六

이에금주는 아즉도 잠이덜쌔여가지고『응、아버지가귀부인집에잇서?』하고는 사방을둘레둘레하엿다

귀부인은 벌서밧안으로 들어와서『오! 어엽부다 내가가리가 넛가 아모것도무서울것업지요』하고귀여운 그볼에키쓰를 하며가만히 안아다가 마차에노핫다 그리고는 이래리거리로 향하야살과가티 다라낫다

로파는 그마차가 보히지안을쌔까지 서서보다가 비로소정신을차린듯이

『큰신하고 칭송한원보가엇저다가 그런변을 당햇슬가암만해도살수가 업나니 근처사람을불러서 긔도나들여주어야겟다』하고발을돌리어서 다름질을 처러하엿다

이쌔에저편에서 급히 걸어오든한사람이 로파를보자

『여보우리집할멈아니오?』

하고소리를 쳣다

로파는거의 펄덕주저 안즈려하며『아 아 이게웬일이야 이게웬일이야』

『나는원보요웨이러케 놀래오? 금주는잘자오?』

로파는 이상한듯이 가둥의를빗놀롱하야 이리보고 저리보고하면서 원보를 바라만보다가갑작히 쌔닷는듯이 부르지젓다

『아이고 이걸엇지나 당신이갈비에가 부려젓다더니 거짓말이요?』

『무슨소리야그게 금주 안에잇소?』

『안에잇다니 잇슬리가잇나당신이 병원에서 다릴러보내지안엇소?』

『무어 병원?』

『네 원장의 부인인가를 보내서금주는 지금막 마차를태워서고갓는데』

마차라는말을듯고 원보는 머개짐작하엿다

『그러면 속앗구려할멈 어서지세히 이야기하오 누가언제와서 무어라고하고 금주를다려갓소? 응? 누가무어라고하고』

로파도 엇절줄을 몰으고그사실을죄다말햇다 원보는 실망하야울며부르지젓다

『아 내친작이 맛는고나 금주를죽이랴고 다리고간것이다 아 분해! 할멈 그마차는어대로갓소 그러고 엇더케생겻습되까?』

『밤낫나는 쌍두마차인데 래리거리로갓서요』

『밤빗나는 쌍두마차? 그러면박씨집미님을 채가라든 그마차로구나 이래리거리가튼면 금주를아는사람도만타 이제곳 쏘차가서 순사에게도 부탁하고또수색을하면 못잡을것도업겟지 어대싸지고 쏘차가자!』

이러케말하고 미친듯이 달렷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소용이잇슬가아! 원보의가슴속이야말로 실로창자가끈어지는듯하엿슬것이다

× × ×

원보가 범룡가 일운선생에게 서류를 감정하려오기로한 목요일이되엇다 퇴경선생은 백수에게 이말을듯고 면회한결과가 엇더케될가하고 매우기다리고잇섯다 그래서 점심쌔부터는업업시 시계를보고잇슴을 오후세시쯤하여서 명함을드려보내고 배알하기를 청하는사람이잇섯다 명함을보즉 청소마의변불인 백인희이엇다 이예죽시드려오라하야 그후로엇더케되엇느냐고 물은즉 그는 요전에 왓슬쌔보다 한층더유쾌한빗을 띄이고 대답하엿다

『뎐하 일이차차로 잘되어서 지금은 한대적의자손이 확실히 한사람밧게 업다는것을 알앗슴니다』

한사람이라 하는것은 먼저하든말과 틀리는말인고로 뎐하는 얼골을 찡그리며

『하아 다만한사람?』

『네 지금가태서는 암만해도 한사람만 살아잇는것갓슴니다』

『그러면다른사람들은 다죽엇나요?』

『네 그런모양 갓슴니다』

『그러타하면 그사람증서를보지안으면 아심할수가 업지오 한사람 쪽으로알고 그사람에게 재산을 주엇다가 나종에또한사람이잇다고 나서게되면 심히곤난할뿐아니라 그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안되엇스닛가』

『그럿사외다 그럼으로귀도사망증서를 손에너흐랴고 각방면으로 도라다니엇는데 이것도무엇어려울것 업겟지오 엇잿던살아잇는 한사람의 주소까지안것은 제수완이올시다 상을타도당연할가 합옵니다』

뎐하는감복하는듯이

『아、주소까지알앗서요? 아닌게아니라 청소마씨가 소개한당신의수완이올시다감복할수밧게 업습니다』

第一回 夏期遊戲運動會	
一、日時	大正十四年六月六日土曜午後一時
一、場所	往十里公立普通學校運動場
主催	往十里幼稚園後援會
後援	朝鮮日報高陽東部支局

普聲

◇六月號內容槪要◇

治安維持의實施와朝鮮獨立運動……野村生
契約自由의原則으로因하야生하는社會的慘狀……瀞海仁
文明의再建(一名世界改造)……랏셀
正義의길을밟으라……天道神
某新聞의不正報道를보고서……雲生
覆面生과쇠파리의對話……베라방이

文藝
新詩 明沙十里에서(外十一篇)……牛耳洞人
小品 몸간敗卉쇽……만우
童話 世界一週……微笑
小說 (戀愛哀話)絶望……O S
小說 나의生涯……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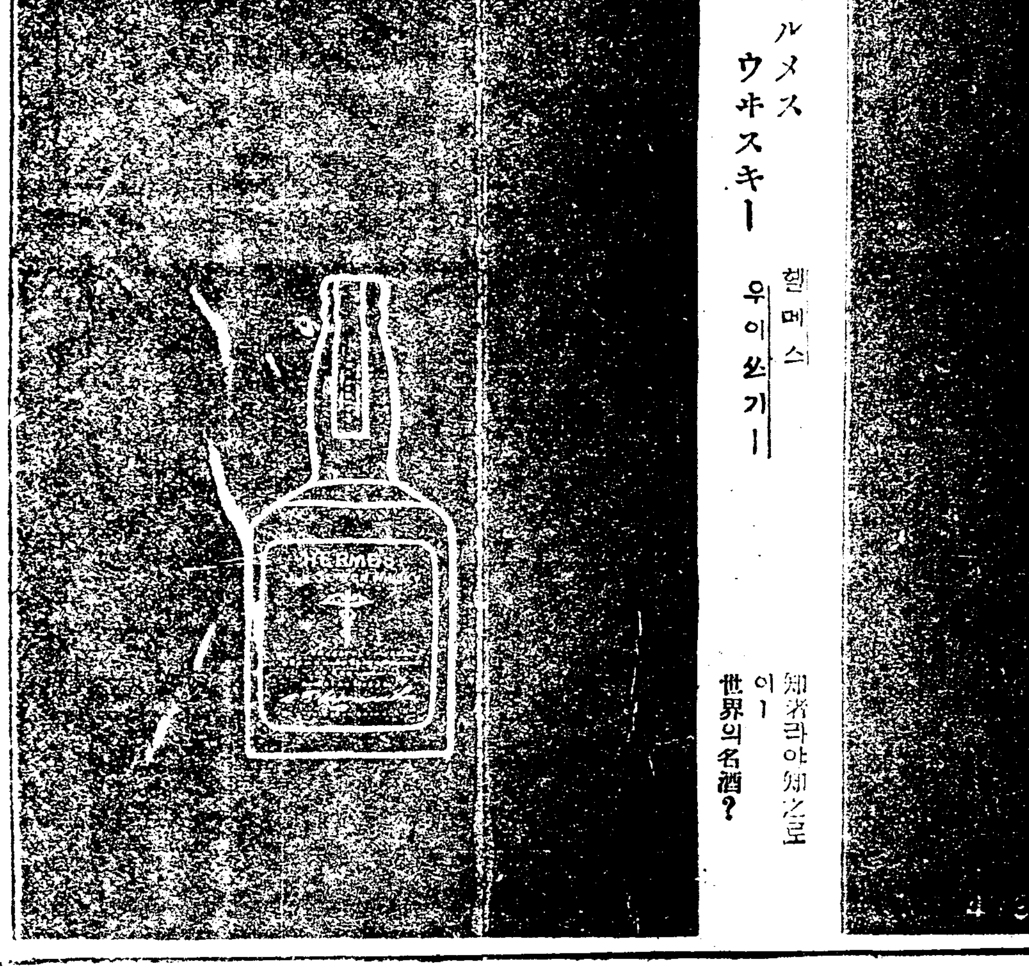
其他十數種

發行所 京城府松峴洞三十四番地 普聲社 (電話光化門五九八番 振替京城五六九番 普成專門學校內)
一冊代四拾錢必要 先金五部以內不爲代金引換

優待引換券有効期間 今月末日外지
五圓以上注文하실쌔에下記한引換券을切取하야보내시면現金壹圓과가티細算하겟슴니다
十圓以上注文하실쌔에下記한引換券을切取하야보내시면現金貳圓과가티細算하겟슴니다
安東縣興隆街 南洋公司 時計眼鏡紀念大賣出
引換券 壹圓 讀者優待
引換券 貳圓 讀者優待
本店上海 瑞西特約 中國總代理 アンクル LANCO LANGENDORF 各種懷中時計 信用 シリン時計 LANCO 各種腕卷時計
驗目配光 科學眼鏡 光學一第 米國 Crookes 克羅克司眼鏡 中國天然水晶玉 Toric 家米國吐力克羅眼鏡

六月五日부터同拾四日싸지拾日間 時의紀念宣傳一割引大賣出
仁川觀測所直報 標準時計 京城本町二丁目 村木時計店
(正確한時間의照會는電話本局四七一番으로)
(時計貴金屬의用命은電話本局三一六六番으로)
◎六月七日第一日曜는公休日이오나大賣出中임으로平日과如히營業합니다

蚊帳 (曲尺은法寸(尺木)으로함)
▲同心組合員
●日本網紗 長六尺五寸廣三尺五寸一件三圓七十錢 長六尺五寸廣四尺五寸一件四圓十錢 長六尺八寸廣六尺一件四圓八十錢 長八尺廣六尺一件五圓五十錢 廣六尺三寸 但十件以上에는五分割引함 一件六圓三十錢
●西洋網紗 長六尺廣五尺一件七圓五十錢 長六尺七寸廣六尺七寸一件九圓五十錢
●生絹 四四蚊帳一件八圓五十錢 四五蚊帳一件拾圓 四六蚊帳一件拾貳圓
毛物蚊帳 京城府公平洞六六番地 大成商會 張基肇 電話光化門五二四番 振替京城三七一三番



分配金依額 ◇崔秉琮氏 井邑郡永元面 … ◇宋元圭氏 井邑郡 … 面五湖 … ◇井邑郡山內面宗溪里金日瑞氏 … ◇面有志寒 … 里人士李鎭珠、朴興守、宋準祚 … ◇朴鎭英氏 始興郡 … ◇安京煥氏 全南咸平郡月也面 … ◇李成浩氏 沃川郡 …

中國人絹布商이 日本品注文開始
綢緞類騰貴原因在此?

中國上海一帶를中心으로波及된罷業을因하고一方으로米棉의連日續騰을因하야大阪三品과如한도亦是昂騰되는同時하야該地現物의騰貴는勿論이오中國麻布도一時滯留되어綢緞類의騰貴外지見케되는多少異狀의感을有케하는바이에對하야大昌貿易支配人洪秉殷氏는다음과가티말하더라

平均七分騰貴
大昌貿易支配人 洪秉殷氏談

綢緞類의騰貴率은種類를따라不一하나平均하면約七分이라고보겟는데其原因에關하야는諸種의觀測이有하겟지만余의觀察로는昨年日本에서奢侈關稅를實施한以來로中國絹布의朝鮮內에輸出은不可能케되얏고朝鮮內에中國人絹布商들은新規輸入은無하드라도旣往의殘餘品으로于今外지需要에應하든狀態이엇섯스나此亦皆無케되얏는今日이오一方으로日本絹布商은中國品의代用品으로日本産을朝鮮에入코자諸般努力을不怠하얏스나

中國商人 은依然日本品에着手치아니하얏든것이挽近에至하야는中國商人도日本品에依치안흘수업게된形便으로朝鮮內取要中國商人은모다日本品을注文케된關係로一時에巨額의注文을接케된日本産地에서는自然히價格이騰貴된것이라思하는바一時的人氣關係가아닌가한다如上한狀態임으로最近에는中國貿易商의勢力은極히微弱하든것이엇스나將來에는다시活躍을見할것갓고此反面에朝鮮人側貿易商에게影響이不無할것갓다云云

綿糸續騰
米棉一圓七十錢高

本朝에至하야更히米棉一圓七十錢의連續高를入함과輸出旺盛에加하야上海側一帶의騷擾를材料로見하는傾向이多한點으로부터前場引値는期近三百八圓九十錢先物三百五圓九十錢으로前日에比하야約三四圓方의暴騰을見케되엿더라

當地强氣難望
興一社 李賢在氏談

上海騷擾와原料高로三品은益益續騰을呈하나必히堅實한步調라고보기는難하고當地現物亦强硬하야三A는六七圓方騰貴를示하얏스나일로부터不需期에接近되야二週日後면實行이無할것임으로그리强氣는望할수업스리라한다

上海罷業과 對中貿易影響
아즉은微弱

上海排外運動은逐日深刻히되고罷業은漸次一般的으로되야至今은總商工的活動이거의停頓의狀態에잇스나朝鮮으로서는貿易關係도그리크지아니한이만큼影響이道가업겟다다만一時的의것으로永續치는아니하리라思하나中國의일이니外如何히될지豫測키難하다貿易品中季節物로는朝鮮으로부터는人蔘海産物세멘트砂糖과上海로부터는麻布雜貨等이主要한것이나雙方共히當分積止할것이라겟다

綿絲先高豫想
鈴木支店談

直接으로는格別한影響이업겟스나綿絲는在中紡績業의減産을念慮하야先行은不好치아니하리라豫想된다

對中爲替引下
(東京電) 上海騷擾에依한團體株暴落의結果四日正金建値를四分之一引下의四十一弗四分之一로하엿더라

麻布騰貴
大昌貿易談

上海外商地間의運搬이杜絶되얏슴으로上海豫想으로中國麻布는五六分의昂騰을告하야乾衛蛋(十六反入)는百五六圓으로부터昨今은百十圓外지昂騰되얏고絹布는關稅를因하야今에는輸入이無함으로直接影響은無하다

爲替昂騰
華商德順福談

只今騰貴되는것은麻布만이나最近爲替의昂騰으로本日은五十三兩半에外지騰貴되얏슴으로麻布도따라서相場의昂騰을告하야一週間前에比하면百圓에就하야四圓方이騰하얏는데綿絨昂騰될것으로思한다

荷物積船中止
朝鮮郵船談 永續되면

埠頭의荷役이不能하다는通知가來하얏는데七日에仁川을出帆한平安丸은旣히荷物을積하얏고豫定과如히出帆할터이나罷業이永續되면當分積止外에他道가업겟다然이나永續되지는아니할것가티思한다

貿易杜絶乎
三井物産支店談

埠頭人夫의罷業으로當分荷物의積下가不能하다는電報가來하엿스니當分上海貿易은杜絶될外에他

四百二十八萬餘圓을示하얏스며本月中重要品의出入額을前年同月과對比하건데輸出에서는海蔘砂糖,綿織物,세멘트等이出荷不振을呈한것이不少하얏다然이나是等의紅蔘外多少多量의積出이잇섯슴으로七十四萬餘圓을

增加 하고其外木材牛皮魚類等도多少나마出荷를見하얏고大에輸入에在하야는豆粕,綿織物,原料糖,石炭及機械類等의減退가多少現著한것이有하얏스나粟의需要가引續好況으로數量八萬五千餘石價格百八十一萬餘圓을增加하고日本內輸入品인作蠶絲도亦是八十一萬餘圓을增하고其外石油,綿布,中國麻布,豆類等도相當히增進한者有하얏더라

『쌀』日步續落
(大阪電) 大阪『쌀』翌日物은四日에一錢二厘로二厘方의低落이엇고同日交換後更히一厘의續落을呈하얏스나長期物은依然히出渡인續緩이더라

金融組合懇話會
貸付擴張可決

第三回全鮮都市金融組合懇話會는五日午前十時부터京城商業會議所에서開催하얏는데出席者는全鮮各組合長理事書記長四十九名으로會議는六日外지續行할터인데開會劈頭에協議事項의一인貸付金限度擴張의件(組與外七個所提案)을付議하야信用貸付一千圓을二千圓으로擔保貸付三千圓을五千圓으로擴張을要望할事를決議하얏더라

小麥暴騰
本日市俄古期近物一弗六十八仙二分之一九月物六十三仙六分之五로連日高를唱하야製粉界는益益强調에推移하리라고觀測한다더라

時新商會開業
綢緞을專門으로

多年間海外에서織物을實地研究하고歸國한金聚煥氏는五日부터綢緞을專門으로市內南大門通大廣橋西角에서開業케되엿는데商號는時新商會라稱한다더라

仁川期米 第一報
期米 五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	—	—
中限	三六、九○	三六、三五	三高
先限	三六、五三	三六、六○	[illegible]

前場小强

昨後場阪地四十一圓四十六錢止와共히三十八圓五十六錢에强硬히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四十一圓四十四錢인二丁小落을受하고三十八圓五十一錢에場을始한後五十錢外지小弛하엿다가阪地四十五錢의四番同事로五十錢臺로跳返하야結局五十七錢에止場하고八節五十九錢外지返戾하엿스나戾價에는또한買物이稀薄하야五十六錢으로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九丁이며阪仁의鞘는三百一丁이더라

阪軟仁硬의逆順

正米의實勢를따러騰貴의氣勢를呈하든各地商狀은昨今實米의一服과相俟하야또한痛勢를示하는가운데에阪地는四十餘丁을下押로阪仁의鞘는不知中二百九十丁外지縮少하엿다要컨대阪地는三木筋의賣叩力이有勢한模樣이요當地는㋖筋의買進勢力이宏大하야三木對㋖의遠距離戰爭이開始된듯한感이有하며同時에局勢도保續不離하는現狀이다然而變材

五月中對外貿易
入超九百萬圓

五月中對外貿易額(對日貿易不含)은輸出二百四十一萬餘圓輸入一千百八十二萬餘圓合計一千四百二十四萬餘圓으로前年에比하야輸出六十四萬餘圓輸入二百三十萬餘圓合計二百九十五萬餘圓을增進하엿고一月以降貿易額은輸出九百八十五萬餘圓輸入五千百十萬餘圓合計六千九十六萬餘圓으로輸入超過四千二百二十五萬餘圓을計上하얏는데此를前年同期에比하면輸出이約五萬餘圓의

減少 輸入은四百三十二萬餘圓의增加로出入合計四百十七萬餘圓이增進인바入超額이加重

四國綜合一觀

一時阪地四十二圓當地三十九圓을突破할듯한形勢이엇스나三木筋의猛烈한賣로그伸力을阻止하야瑕保勢를持續하는中인데四國의事情을綜合하면朝鮮及日本을不問하고在米減少한가은데에蒙家로서는極度로賣惜하야大勢를支配할만한勢力을有하며同時에正

는昨年一盛한後입으로更히行動을加할餘地가업스며材料는現在에不過할形勢으로도또한實現實을計劃키難한바果然特殊한材料가出現하기前에는左右間을確定할수업스리라고

米豆餘話

▲賣一貫의方針을固守하든山田筋의洪陣說이잇슨後硬化說外지流佈하더니松井筋의肩代玉中에當限만는山田筋이肩代하엿다는說도잇다▲엇지하엿든山田筋도手當米를調運키難한現狀으로보아서는賣方針을株守하기도어려울緣故▲阪地賊報에는三木賣가有力하고當地는㋖賣가優勢이니結局阪仁兩地의戰爭이開始한듯▲아모리當地가頑强하다가도阪地低落에는牽制되는常例임으로當地의情況보다도阪地의情勢를注目하는것이得意일듯▲그러면三木筋의攻擊이猛烈하야一段暴落을告한다하면㋖筋의隨軍은結局敗北에歸하지안흘가?▲그러치만四圍情勢의如何를不拘하고無謀賣를行하기가難한일이어오또그러한時期일것가트면㋖筋도엇더한防戰策이잇슬터이지

米의頑强함을보고서는到底히賣轉할餘地가無할것이오此와反面으로政府에서改正된米穀法精神에基하야價格調節의準備가不無할듯한데第一方으로古米를拂下한다하면一段反落을免치못할듯하나그러나萬一古米賣下가實現하는때에는産地의買付難을苦感한正米師가絶對拂下米를買受할計劃인즉實需緩和에는多少餘影이有하겟지마는時勢에는何等의大關係가無하리라는無非硬說이또한盛하다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三六、五一
二節	—	—	三六、五四
三節	—	三六、四九	三六、五一
四節	—	—	三六、五四
五節	—	三六、四九	三六、五五
六節	—	—	三六、五六
七節	—	三六、一○	三六、五一
八節	—	三六、一一	三六、五九
九節	—	—	三六、五七
十節	—	—	三六、五六

後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六、三○	三六、六五
二節	—	—	三六、六六
三節	—	三六、三○	三六、六六
四節	—	三六、三六	三六、七九
五節	—	三六、三九	三六、七七
六節	—	三六、三五	三六、七三
七節	—	三六、三○	三六、七六

	當限	中限	先限
取組高	三六○○	一七六○○	三○○○○
出來高	九七○○	二五○○○	一七○○○
入帳價	三六二○	三六二○	三六二○
合計		三二六○○	
累計		二八七七○○○	

各限俵合 前場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小弛

一時熱狂的人氣로買付하든正米師도高價에는또한警戒를入하야傍觀的態度로잇슴을알하賣買稀薄하며幾分低落을示하엿는데本日標準價格은左記와如하더라

◎仰文米三等	三七、八○
同 四等	三七、四○
無撿査米	三六、○○
一等精白米	四二、○○
在來正租	一一五厘
改良正租	一一七厘

大阪期米

前場		後場	
當中	三二、○○	當中	三二、○五
一節	三二、[illegible]	一節	三二、[illegible]
二節	三二、[illegible]	二節	三二、[illegible]
三節	三二、[illegible]	三節	三二、[illegible]
四節	三二、[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三二、[illegible]	五節	[illegible]

東京期米

前場		後場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各地期米

	前	後
民庫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京取市場
株式 五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初付	大引	高價	低價
京取	前	二一○○	二一○○	二一○○	二○八○
	後	二一○○	二一○○	二一○○	二一○○
仁取	前	—	—	—	—
	後	—	—	—	—
仁新	前	三一七○	—	—	—
	後	三一八○	—	—	—
安取	前	七○○	—	—	—
	後	—	—	—	—
鍾新	前	一一八○○	一一八三○	一一八七○	一一八○○
	後	—	—	—	—
大新	前	八二二○	八二○○	八二二○	八二○○
	後	八二○○	八二○○	八二○○	八二○○

케하야一技케하고거하는一部의賣叩로二十圓七十錢에外지低落된關先今朝로南와三百株介와小口買로二十一圓臺를恢復하야一氣로不下하고下値는深甚한듯하얏스나株式市場에別無材料인此際인즉亦是株에追從할수밧게업슬듯한바一部에서傳하는援込說은會外지의策動云云等도事實何等의陰謀가되지아니할것갓다

前場諸株步調

▲京取 二一○○—二○九○—八○—一○○—
▲仁新 三一七○—
▲安取 七○○—
▲鍾新 一一八○○—一○—二○—三○—
▲大新 八二二○—三○—二○○—

前場賣買關係

▲京取四○○(株介)南三○○(賣)吉見朴(買)定岡白井▲仁新七○○(株介)朴新田▲安取五○(賣)白井吉見(買)金秀新田▲鍾新三○○(賣)吉見洪成浩南市川(買)新田朴成浩▲大新一五○(賣)閔白樂(買)洪成浩朴田中

後場閑散
(前場終價와後場終價比較)

京取 保價 仁新 一○高
大新 保價

後場은阪休로至極閑散한商狀을呈하야무하이엇섯스니京取는保價로二十一圓에付止되고仁新은十錢高로三十一圓八十錢에一步하고大新이保價로八十二圓에一步할뿐이엇섯다

後場諸株步調
▲京取 二一○○—一○○—
▲仁新 三一八○—
▲大新 八二○○—

大新遂逆日步

大新은逆日步豫想이던바今日은드되어百枚의株不足을告하야逆日步四十錢이엇다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代引	算定	日步
京取	三三四○	三○三○	三一○○	一五
仁取	一四○	不足 一○	八五○○	逆三五
仁新	一三三○	不足 四○	三三○○	逆三五

前場好勢
(昨日終價와前場終價比較)

京取 三○高 仁新 一○低
大新 五○高 安取 保價
鍾新 九○高

大新에人氣離散

京取는底堅하야二十一圓을恢復하야初付된後다시二十圓臺로八十錢에弱步이엇스나大引은二十一圓으로不俟할商狀이엇고仁新安取는谷小口商內로依然虧着不變이엇스며大新은七十錢高로八十二圓二十錢에付한後三十一步로八十二圓에大引되여遲遲로人氣離散되여商內不過百五十이엇스며鍾新은百十八圓으로同鞘初付後漸强하야七十錢高價에外지買上되다가大引은三十錢으로好勢이엇다

人氣는鍾新에
又復新高價

昨後場에下押되든鍾新은今朝는米棉一圓七十錢高로綿糸의昂騰을招하야株式相場은다시上伸하야鍾新은前述과如히百十八圓七十錢新價에外지買上되야今年中의最高價인百十八圓八十錢을突破할氣勢로人氣가鍾新에集中되고逆日步關係도助勢되여商內는大新의倍에達하는好況이엇섯다

中國問題는
强材?弱材?

中國問題는아즉을强材라할가只今外지는直接으로日本絹業界에活躍할動機를與하고文殺到로絹綠가高하고株式이이에好感되는터이나中國問題가依然이排外運動에止하고日貨排斥으로되는그때는株式界는자못큰波瀾을惹起케될것이다

京取下値寂寞

京取는客筋이買付할으로値落

出來高
▲長期 累計 一四五一○○○
▲短期 累計 六七九○○○

大阪後場休會

大阪後場은當限受渡로長短期共히休會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鍾紡	三六四○	三六四○	—	—
東新	二七三○	二七四○	—	—
大株	九九四○	九九四○	—	—
同新	八二○○	八二○○	—	—
郵船	六六四○	六六六○	—	—
同新	六六○○	—	—	—
商船	二一○○	—	—	—
同新	[illegible]	—	—	—
日紡	一○四○	一○四○	—	—
東紡	一四四○	一四四○	—	—
大株中引	[illegible]	—	—	—
大株新	[illegible]	—	—	—

大阪短期株式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鍾新	一一八○○	一一八四○	—	—
大新	八二二○	八二二○	—	—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八二一○—二○—一○—四○—一○—五○
▲前場鍾新 一一八○○—三○—四○—五○—

綿絲 五日

大阪三品

月限	前付	前止	後付	後止
六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前場	後場
當限	一九三○○	一九三○○
先限	一九四○○	一九四○○
武州格現物	—	一八六○

仁川期米 福 小林藤右衛門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廣澤正次郎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六五·七○·一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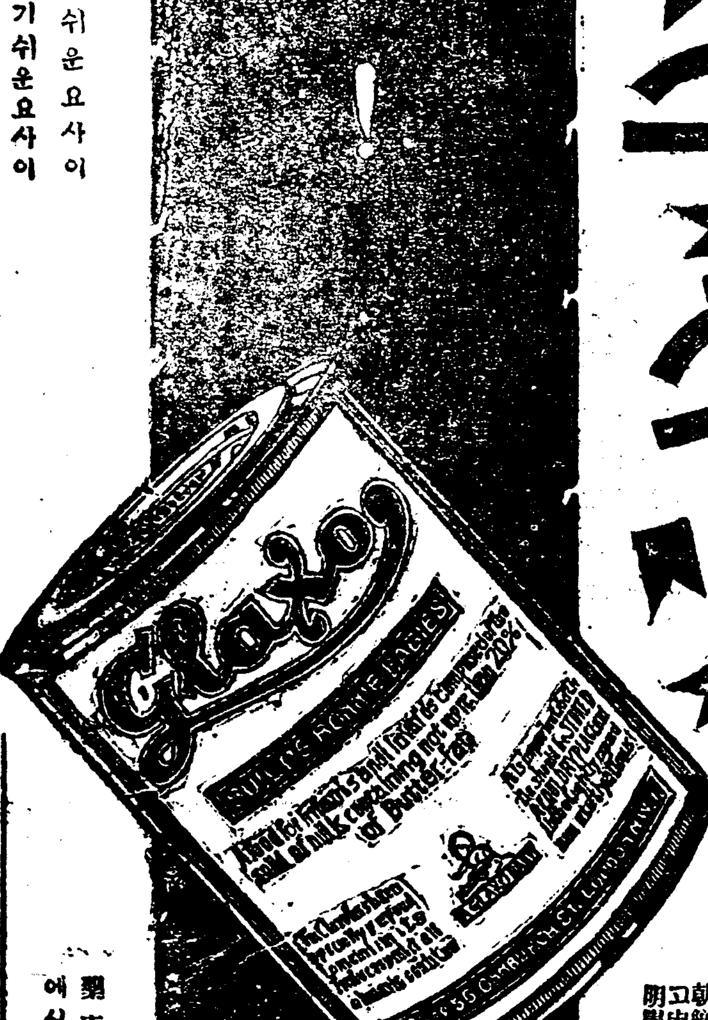
米穀肥料委托賣買
廣澤正次郎
仁川宮町二丁目 電話長三○七番

임질의靈藥 治淋丸 一圓、一圓八十錢、三圓
梅毒의靈藥 根治丸 一圓、一圓八十錢、三圓
京城南大門內 救世藥館 電本二九六九 振替一二六九

當六月五日(金曜)부터特別二大名畵提供
●米國콜드윈社超特作 天才兒작키구ㅡ강君主演 世界의愛好의中心 全世界를通하야到處마다관側의激讚을바든偉大한눈물의傑作名映畵
悲劇 후란다ㅡ스의少年 全八卷
崔南善氏譯(불상한동무)
◎米國파마운트社空前의大作品 戀愛活劇 늣치지마라 全八卷 名花베데이콤푸숀孃主演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五番
豫告 大名畵 三銃士 全十二卷

六月六日土曜부터二大特撰名畵公開
實寫 ? 全一卷
■米國구리스지이會社 大冒險喜活劇 女로이도 全六卷
■米國유나이뎃드社超特作 文藝映畵 大悲曲 嵐의孤兒 全十二卷
豫告 近日上映 米國유나이뎃드社大力作 名畵 ? 全卷 上映日을期待하시오
日活特約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當六月五日부터三大名畵大公開◇特別大公開
◇유社作品 實寫 國際時報 全一卷
◇유社特作品 連續活劇 第一拳鬪王 全十二卷中 第一回第一編第二編 四卷上映
◇유社代表的大作 連續偵活劇 電波王 全二十卷中 第一回第一編第二編 四卷上映
◇유나이뎃드·지·쓰드社大作 大冒險大活劇 다크라ㅡ쓰大王 全八卷
△豫告▽ 近日公開 朝鮮俳優學校學生總出演 第一回作品 大悲曲 淑英娘子傳 全篇
松竹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粉末ミルク グラキソ
구라쏘
好評!
乳兒의胃腸障害가生起기쉬운요사이
乳兒의榮養不良으로살내리기쉬운요사이
安全하고何時에든지新鮮한榮養第一의구라쏘
를使用하시면반드시그慮念는업서지게됨니다

榮養素뷔다민A·B·C·가루슘·燐酸分·鐵分을含한理想的母乳代用品
藥店、食料品店에서販賣함니다
朝鮮日報에서보섯다고申請하시면見本說明書無代進呈하겟습니다
英國製 輸入總發賣元 顯藥販賣株式會社